금수강산

12

주체106(2017)

루계 제340호 월간

 ISSN 1727—9062

나가자 조선아 병진 앞으로

2. 이 땅에 침략의 원쑤 있는 한
우리가 갈길은 이 길뿐이다
나가자 조선아 필승의 신심높이
경제와 핵무력 병진 병진 앞으로

3. 경제를 건설해 만복 누리고
핵무력 건설해 운명 지킨다
나가자 조선아 세상에 소리치며
경제와 핵무력 병진 병진 앞으로

쇠물이 끓는다

장쾌하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주체철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본사기자 임정국

차 례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

대기념비들에 깃든 숭고한 뜻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천만뜻밖에 잃은 슬픔이 너무 커, 생시같지 않은 현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며 목놓아 울던 주체100(2011)년의 12월이였다.

손에손에 흰 꽃을 들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동상과 태양상이 모셔진 곳을 찾는 인민의 마음속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생전에 그이의 동상을 정히 모시지 못한 죄스러움과 한스러움이 피눈물로 고이였다.

가는 곳마다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고 불멸의 대기념비들과 지어는 나어린 소년영웅의 동상까지 세워주시면서도 자신의 동상만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길이 전하고 빛내이는것을 자신께서 안으신 필생의 본분으로, 숭고한 사명으로 여기시고 그 길에서 행복과 기쁨을 찾으신 그이이시였다.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하기 위한 력사적투쟁에서 대기념비건립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몸소 여러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에 대기념비건립을 발기하시고 정력적으로 령도하시였다.

주체60(1971)년 4월 어느날 제11차 국가미술전람회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기념비조각창작사업은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성을 높이 칭송하고 길이 전하며 우리 인민의 투쟁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삼지연대기념비

을 힘있게 고무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지금 우리 나라에는 그 어디를 가나 수령님의 발자취가 스며있지 않은 곳이 없다고, 자신께서는 유서깊은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에 수령님의 동상을 모시고 사적비와 기념탑을 만들어세울 결심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장군님의 불타는 충정심이 뜨겁게 깃들어있었으며 수령님께서 시대와 인류앞에 높이 쌓아올리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최상의 수준에서 형상하여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고 빛내이시려는 그이의 드팀없는 신념과 불굴의 의지가 그대로 어리여있었다.

이렇게 되여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대기념비건립사업이 전당적,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사업으로 적극 추진되게 되였다.

규모가 크고 사상예술성이 높은 삼지연대기념비에도 위대한 장군님의 심혈과 로고가 깃들어있다.

주체65(1976)년 7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삼지연대기념비에 모실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위치를 확정해주시기 위하여 몸소 삼지연못가로 나오시였다.

일군들로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못 건너편에 모시기로 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 사진을 찍으시였고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함께 들리시여 휴식하신 유서깊은 장소도 봇나무가 있는 못가라고 하시면서 수령님의 동상은 어디까지나 수령님의 혁명사적이 깃들어있는 못가에 모셔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거의 모두가 오랜 창작경험과 년한을 가진 관록있는 창작가, 세계적인 기념비들에 대해서도 환히 꿰들고있는 실력가들이라고 자처하는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빛내이시려는 그이의 숭고한 충정심과 심원한 사색, 빛나는 예지의 경지에 머리를 숙이지 않을수 없었다.

1년후 삼지연대기념비형성안을 보아주신 장군님께서는 삼지연에 모실 수령님의 동상을 봄가을외투를 입으신 상으로 형상하지 말고 항일의 군복에 혁띠를 띠시고 쌍안경을 드신 상으로 다시 형상할데 대해서도 가르쳐주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부주제군상들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형상하며 배치에서 립체성을 보장하고 그러면서도 모든 군상들이 중심주제에 복종되도록 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그이의 교시를 받아안으며 일군들과 창작가

당창건기념탑

들은 형성안의 본질적인 결합을 그처럼 명확하게 분석하시고 매 군상들의 구체적인 세부에 이르기까지 한순간에 찾아내시여 대기념비형성안을 완성시켜주시는 장군님의 비범한 예지와 통찰력에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삼지연대기념비만이 아니다.

수천리 현지지도의 길에 쌓인 피로도 푸실 사이없이 왕재산을 찾으시여서는 왕재산대기념비의 위치도 잡아주시였고 수령님의 동상을 형상하는데서와 군상들의 소재, 봉화를 조형적으로 형상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건립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으며 주체사상탑형성안을 지도하시면서는 주체사상탑의 3인군상을 당마크를 추켜든것으로 형상할데 대한 문제, 탑의 높이, 주체사상탑의 형식과 내용, 규모와 위치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신 그이이시였다.

개선문건립때에도 그이께서는 개선문을 수령님께서 력사적인 개선연설을 하신 유서깊은 곳인 **김일성**경기장앞에 건설할데 대한 문제와 개선문정면에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새겨넣는것과 같은 서예적형상을 비롯한 여러가지 조형적수법들을 적극 도입하여 그의 사상적의의와 력사적내용을 웅심깊이 상징할데 대한 문제, 건설에 필요한 력량과 기자재들을 마련하는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 나날 그이께서 헤쳐가신 길아닌 길과 지새우신 밤, 보아주신 설계도면과 형성안이 그 얼마인지 모른다. 어떤 때에는 솔발과 잡관목을 헤치시며 현지를 찾으시였고 어떤 때에는 식사도 휴식도 뒤로 미루시고 자정이 넘도록 대기념비형성안을 지도해주시였으며 때로는 몸소 현지에 나오시여 대기념비건립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즉석에서 명철하게 밝혀주기도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하고 정력적인 령도는 조국땅우에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길이 전하는 대기념비건립의 전성기를 열어놓았다.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포평혁명사적탑, 만수대대기념비,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 왕재산대기념비, 개선문, 주체사상탑…

참으로 조국의 북변으로부터 분계연선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령도와 혁명업적이 어린 곳마다에 일떠선 수령님의 동상들과 대기념비들은 이렇듯 위대한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사색, 충정심이 낳은 결정체이다.

언제인가 다른 나라의 한사람은 왕재산혁명사적지를 돌아보고 왕재산대기념비는 사상적내용이 풍부하고 예술적면에서도 대단히 훌륭하다고 하면서 《이 세기적인 대기념비건설을 현명하게 이끄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령도예술에 정말 감탄을 금할수 없다.》라고 격동된 심정을 터치였다.

나라의 곳곳에 불멸의 대기념비들을 수많이 일떠세워 수령님의 업적을 길이 전하도록 하신 장군님의 업적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여 조국의 력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며 주체의 대기념비건립의 위대한 력사는 이 땅우에 세세년년 흐를것이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송대혁

개선문

일 화

잡아주신 탑의 위치

주체사상탑형성안이 창작되던 어느날이였다. 이날 일군들은 새로 완성한 여러가지 탑형성안을 가지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향하였다.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고 일군들을 만나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그동안 형성안을 만드느라고 수고가 많았겠다고 치하해주시면서 일군들이 올리는 창작정형을 주의깊게 들어주시였다. 이어 주체사상탑형성안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던 그이께서는 탑을 어느 위치에 세우려고 하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들은 문수거리에 세우려 한다고 대답올렸다. 그들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한동안 아무 말씀없이 탑형성안들을 찬찬히 보시며 생각을 깊이 하시였다.

이윽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수거리는 대동강 한쪽에 자리잡고있기때문에 평양시의 중심으로 될수 없다고 하시면서 탑의 위치는 **김일성**광장주석단과 인민대학습당이 일직선상에 놓이는 대동강기슭에 세워야 한다고 확신에 넘쳐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수령님께서는 평양시의 중심을 **김일성**광장으로 보고계신다고, 수령님께서는 **김일성**광장이 평양시의 중심이기때문에 인민대학습당자리를 남산재에 잡으시였다고 교시하시였다.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고서야 일군들은 비로소 주체사상탑을 문수거리에 세우려 한것은 수도의 중심위치를 잘못 보았을뿐아니라 종전의 관례대로 기념비는 교양마당의 종심이 깊고 폭이 넓어야 한다는 견지에서만 본것이였음을 깊이 뉘우쳤다.

참으로 주체사상탑의 위치를 수도 평양의 중심부인 **김일성**광장의 맞은편 대동강기슭에 정할데 대한 그이의 가르치심은 기념비를 관광의 효과만 보거나 거리형성의 견지에서만 관찰하던 종래의 건축미학적관점에 종지부를 찍고 기념비의 독자성과 의의를 최대한으로 부각하는 길을 밝혀준 건축미학사상의 놀라운 발견이였다.

이날 이렇게 탑의 위치를 잡아주신 그이께서는 탑의 형식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답을 주시였다.

본사기자

제일 중시하신 문제

우리 조국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갈 수많은 만년대계의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이 웅장하게 솟아있습니다.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선 만수대대기념비이며 왕재산대기념비 등을 돌아볼수록 저의 눈앞에는 이 영광스러운 창조사업에로 우리들을 걸음걸음 이끌어주시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가슴뜨겁게 안겨옴을 금할수 없습니다.

그 나날 대기념비적창조물창작에서는 특히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력사적사실에 맞고 시대의 요구에 따라설뿐아니라 영원히 전해질수 있도록 최상의 경지에 이르게 창작하여야 한다는것이 그이께서 언제나 제일 중시하시며 우리들에게 늘 가르쳐주고 심어주신 강령적인 지침이였습니다.

저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중에서 한가지만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창작집단이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속에 만수대대기념비에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최상의 수준에서 형상하여 모시던 때인 주체61(1972)년 3월 17일이였습니다.

이날 이곳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우러르시며 나직이 수령님께서는 만수대대기념비 건립과 관련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교시를 주시였다고,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수령님께서는 이번에도 자신의 동상을 세우는 문제를 두고 거듭 만류하시였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러나 만수대언덕에 세우는 대기념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중심에 높이 모셔야 한다고, 이것은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수령님께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사는 우리 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이라고 하시였습니다.

이어 기념비건립이 가지는 의의를 가르쳐주시던 그이께서는 수령님의 동상높이를 좀 조절하고 위치문제도 다시 따져보아야 할것 같다고 하시는것이였습니다. 순간 우리들은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한것은 얼마 남지 않은 완공날자와 작업량을 보아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였기때문이였습니다.

그러는 우리들을 보시며 그이께서는 동상의 높이도 좀 조절하고 동상을 조각군상에 접근시켜야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그들을 승리와 영광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수령님의 영상이 더욱 가슴뜨겁게 안겨올수 있다고 다시금 새겨주시는것이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거듭되는 교시에 접하고보니 위대한 수령님을 받들어모시는 그이의 높으신 충정의 세계가 가슴뜨겁게 안겨옴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그이께서 떠나가신 뒤 우리 창작가들과 건설자들은 그이의 교시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과연 그이의 가르치심대로 수정을 하고보니 대기념비의 전반적인 구성이 놀라울 정도로 조화가 되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이 보다 숭엄하고 뜨겁게 안겨왔습니다. 우리는 그때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예지와 통찰력에 다시한번 감탄하였습니다.

비단 이것은 만수대대기념비건립과정에서만이 아니라 삼지연대기념비와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 등 이 땅의 곳곳에 일떠선 모든 대기념비건립 전과정에서 우리들이 느끼고 체험한것입니다. 하기에 저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군 합니다. 이 대기념비들이 완전무결하게 최상의 경지에서 건립되게 된것은 우리 창작가들의 남다른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위대한 수령님을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는것을 제일 중대사로 여기시고 이 사업에 온넋을 다 바쳐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충정의 세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라고 말입니다.

만수대창작사 공훈조각창작단
김일성훈장수훈자이며 **김일성**상계관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로력영웅 인민예술가 로익화

금수산태양궁전

사진 본사기자 변찬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1930년 여름

(전호에서 계속)

역에는 마침 장울화의 아버지가 나와있었다. 영구라는 곳에 가서 인삼을 팔고 돌아가는 길에 아들이 해룡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을 나왔다는것이였다. 허리에 목갑싸창을 찬 수십명의 가병들이 우리앞에 고급마차를 들이대였는데 행색이 여간 으리으리하지 않았다. 그통에 령사관경찰들은 어안이 벙벙해서 감히 우리에게 접어들지 못하였다.

우리는 고급마차를 타고 가병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보란듯이 역전거리를 달리였다. 그날 나는 고급려관에 들어 장울화네와 함께 지내면서 휴식을 잘하였다.

장울화네는 보초도 자기네 가병들로 세웠다. 려관둘레에 가병들이 두겹세겹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어서있었다.

장울화의 아버지는 오래간만에 만나니 반갑다고 하면서 나를 특별방에 안내해주고 좋은 음식을 연방 청하였다. 원래 그는 무송시절부터 나를 보면 여간 살틀하게 대해주지 않았다. 손님들이 누구인가고 물으면 롱삼아 양아들이라고 소개하였다. 처음에는 롱으로 그렇게 불렀는데 나중에는 진심을 가지고 양아들, 양아들 하였다.

나는 장울화가 큰 부자의 아들이라는것을 알면서도 무송에 있을 때부터 그와 가깝게 지냈다. 어려서부터 지주가 착취자라는 일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장울화와의 관계에서는 그것때문에 구속을 받지 않았다. 사람이 어질고 량심적인데다가 반일감정이 강해서 거리를 두지 않고 가깝게 지냈는데 위급한 대목에서 도움을 받고보니 감개무량한 생각이 들었다. 내가 평소에 지주의 아들이라고 장울화를 따돌리였더라면 그들이 결정적인 대목에서 나를 그처럼 성실하게 보호해주지 않았을것이다.

혁명에 참여하거나 그것을 지지하지 않아도 일평생 호강하며 살수 있는 장울화와 같은 부자의 자식이 위급한 순간에 아버지와 힘을 합쳐 나를 도와준것은 그가 나와의 의리를 귀중하게 여겼기때문이였다.

내가 무송에서 소학교를 다닐 때부터 장울화는 자기와 나사이에 부자와 가난한자, 중국사람과 조선사람이라는 간격을 두지 않고 친근하게 지냈다. 그는 나라를 강탈당한 우리의 설음을 누구보다도 깊이 리해하고 동정해주었으며 조국을 광복하려는 우리의 결의와 리상을 충심으로 지지해주었다. 장울화가 그렇게 한것은 그자신이 자기 조국과 중화민족을 열렬히 사랑하는 애국자였기때문이다. 그는 조선민족의 비운에서 중화민족의 불행을 보았다.

장울화의 아버지도 부자이지만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주장하는 지조가 강한 애국자였다. 그의 애국충정은 그가 지은 자식들의 이름에도 그대로 반영되여있다. 그는 맏아들이 태여나자 울중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울중의 두번째 글자《중》은《중화민국》이라는 중국의 국호에서 첫 글자를 따온것이였다. 둘째한테는 울화, 셋째한테는 울민이라는 이름을 련이어 지어주었으며 넷째가 태여나면 울국이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그런데 그 넷째는 출생하지 않았다. 네 이름의 두번째 글자를 합치면《중화민국》이라는 국호가 된다.

장울화는 그때 나에게 명년 봄이나 가을쯤에는 일제놈들이 쳐들어올것 같은데 일제놈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작정인가고 물었다.

나는 그에게 《일제놈들이 들어오면 맞받아나가 싸우려고 한다. 무장투쟁을 하자는것이다.》라고 말해주었다.

장울화는 자기도 투쟁을 하기는 하여야겠는데 집에서 허락하겠는지 모르겠다고 걱정하였다.

그래서 나는 말해주었다.

《나라가 없어지는데 집이 다 무엇이냐. 너도 낡은 사회를 반대하여 싸우기로 마음먹었으면 혁명을 해야 한다. 인제 다른 출로라는것은 없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우국지사로 공산주의에 대한 말이나 하고 집에 앉아서 책이나 보는것밖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 이 두 길밖에는 없다. 그러니 부모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혁명을 해야 한다. 그것이 중국을 위한 길이고 중화민족을 구원하는 길이다. 너야 다른것이 있니. 중국사람들과 같이 혁명을 해야지. 일제놈들이 쳐들어오면 그때에는 조선사람들뿐아니라 중국사람들도 같이 들고일어날것이다.》

이렇게 그 려관에 2~3일간 묵으면서 장울화에게 반일사상을 불어넣었다. 장울화는 나의 권고를 듣고나서 학교를 마치면 자기도 혁명을 하겠노라고 하였다.

나는 그에게 《내가 정 바쁘면 너의 신세를 또 질수 있으니까 심양 어디에 가있겠는지 주소나 하나 적어달라.》고 하여 그의 심양주소를 받았다. 그런 다음 목적지까지 무사히 빠질수 있도록 나를 도와줄수 없겠는가고 하였다.

장울화는 너를 돕고 보호해주는 일이라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는가고 하면서 나를 자기네 마차에 태워 해룡현과 청원현의 경계에 있는 중국동무의 집까지 데려다주었다.

내가 찾아간 그 동무의 집도 역시 장울화네와 같이 잘사는 집이였다. 중국혁명의 선각자들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나는 그래서 중국혁명이라는것이 특이한 혁명이였다고 늘 생각하게 된다. 로동계급이나 농민과 함께 인테리들, 돈냥이나 있는 사람들도 혁명운동, 공산주의운동에 많이 참가하였다.

부유한 가정출신의 사람들도 인간의 자주성과 사회발전을 억제하는 모순점들을 발견하게 되면 그 모순을 제거하기 위한 혁명운동에 참가할 각오를 가질수 있다. 자산가출신들가운데서 근로대중의 리익을 옹호하여 싸우는 투사나 선각자들이 배출되는것은 그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출신이 아니라 세계관에 있다.

인생을 하나의 도락이라고 보게 되면 혁명을 못하고 부를 누리는것으로 그치고말며 도락을 못 누려도 사람답게 사는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게 되면 부자도 혁명에 참가하게 되는것이다.

계급혁명이라고 하여 이런 선각자들을 다 따돌리게 되면 혁명 그자체가 큰 손실을 보게 된다.

나는 중국동무의 집에서 며칠간 묵었는데 그 동무도 장울화처럼 나를 잘 대해주었다. 그 동무의 성이 왕가였던지 위가였던지 지금은 기억에 삭막하다. 그 사람을 내세워 며칠동안 최창걸을 찾아보았으나 허사였다. 최창걸은 8. 1폭동이 일어난 다음 지하로 깊숙이 들어갔다고 하였다.

나는 초시부근의 공청원을 한명 만나 해룡과 청원일대에서 파괴된 조직들을 속히 복구하고 무장투쟁준비를 적극 다그치라는 부탁이 담긴 편지를 주어 최창걸에게 전하도록 하였다.

중국동무의 집에서 며칠동안 손님대접을 받으면서 지내보니 그것도 갑갑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였다. 신변에 위험이 조성되더라도 대지를 마음껏 밟으며 자유분방한 활동에 몸을 잠그고싶어 견딜수 없었다. 공작을 위해서 또다시 변장을 하고 활동을 해야겠는데 서뿔리 하다가는 재미가 없을것 같았다. 길림에 다시 돌아가기도 어렵고 또 남만철도는 일제놈들이 주관하고있어 기차를 타는것도 용이한 일은 아니였다. 간도에 가고 싶었으나 공산당검거선풍이 불어치는 그런 고장에 가서 견딜수 있을것 같지 않았다. 그래도 가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어떻게 하든지 동만에 나가서 무장투쟁준비를 해야겠다고 결심하였다.

나는 중국동무와 함께 해룡에서 기차를 타고 길림까지 갔다가 거기서 다시 기차를 타고 교하라는 곳으로 떠났다. 교하에는 우리의 영향하에 있는 조직들이 많았다. 길림시절부터 나와 친교를 맺어온 한영애와 그의 삼촌 한광도 거기에 있었다.

나는 그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당분간 군벌의 추적을 모면할수 있는 은신처도 꾸리고 조직을 복구정비하는 사업도 벌릴 작정이였다. 한영애를 만나면 할빈에 있는 국제공청산하 상급조직과의 련계도 지으려고 생각하였다.

한영애는 1929년초에 가정사정으로 길림에서 학교를 중퇴한 후에도 교하에 돌아와서 계속 우리와의 련계를 끊지 않고 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오성산은 말한다

언제인가 오성산칼벼랑길을 찾았던 우리 나라 주재 어느 한 나라 대사는 이 세상에 많은 국가수반들이 있지만 **김정일**동지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조국수호에 나선 그런 참다운 애국자는 일찌기 없었다고 말하였다.

오성산은 조국의 중부산악들중에서 높고 가파롭기 이를데 없는 산이다.

어느것이 길이고 어느것이 수풀인지, 한치 헛디디면 그 깊이를 가늠할수 없는 곳으로 나떨어질수 있는 천길낭떠러지, 보기에도 섬찍할 정도인 칼벼랑길 백쉰두굽이, 게다가 코앞에 적들이 도사리고있고 언제 불질을 할지 모를 적의 총구가 항시적으로 겨냥하고있는 위험천만한 오성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곳을 두차례나 찾으시였다. 억수로 비가 퍼붓던 어느날 쭉쭉 미끄는 령길을 한치한치 헤쳐가시던 잊지 못할 8월이며 칼바람 몰아치는 아찔한 벼랑길을 주저없이 다시금 톺아오르시던 못 잊을 11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전에 그때를 회고하시며 이런 내용의 교시를 하시였다.

나는 오성산초소에도 두번이나 가보았다. 오성산에 올라가자면 칼벼랑길을 백쉰두굽이나 돌아야 한다. 오성산초소에 처음 갈 때에는 길이 얼마나 험한지 차가 전진하지 못하였고 자꾸만 제자리걸음을 하였다. 그래서 나는 차에서 내려 차를 밀지 않으면 안되였다. …

오성산뿐이 아니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혁명령도의 나날 이런 위험천만하고 준엄한 전선길을 무수히 헤쳐가시면서 조국과 민족, 사회주의를 지켜내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의 발악이 더욱 우심해지고 엄혹한 시련이 겹쌓일수록 혁명의 기둥이며 주력군인 인민군대를 앞장에 내세우신 그이이시였다.

돌이켜보면 그때는 참으로 준엄한 시련의 시기였다.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만전쟁에서의 《승리》에 도취된 미국은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봉쇄, 군사적위협과 압력소동에 발광적으로 매달리였다. 여기에 자연재해까지 겹쳐들어 조국은 심각한 경제적난관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적들은 제나름대로의《조선붕괴》시간표를 짜놓고 3개월인가, 3년인가 하면서 조선의 생존기한을 점쳐보았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박솔초소에 대한 현지시찰을 진행하시여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드시였다. 그이께서는 언제나 철령과 판문점, 초도를 비롯하여 험난한 전선길을 이어가시였다. 단순히 군부대들의 전투준비상태에 대한 시찰의 길이 아니였다. 미제와 끝까지 맞서싸워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사생결단의 길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선군혁명령도가 있어 조국은 미제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책동에 단호한 반격을 가하며 치렬한 조미대결전에서 련전련승만을 안아왔다.

일찌기 군력강화를 선군혁명의 첫째가는 중대사로 내세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국방공업발전에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시였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라의 방위력강화는 한시도 미룰수 없다는 그이의 신념과 헌신에 의하여 국방공업은 위력한 무장장비들을 마음먹은대로 만들어내는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병기창으로 강화발전되였다. 그 나날에 핵보유국으로까지 솟구쳐오른 우리 조국이였다.

하기에 나이제리아주체철학연구소조 위원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인류자주위업에 쌓으신 위대한 **김정일**각하의 업적중에서 가장 특출한것은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미국을 위시로 한 렬강중심의 낡은 세계정치구도에 파렬구를 내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신것이다. 그이는 조미대결전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인류에게 평화의 푸른 하늘을 펼쳐주신 대성인이시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주체80(1991)년 12월 24일]으로 높이 모시였기에 군대와 인민은 그처럼 엄혹한 시련속에서도 단독으로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과 맞서 이 땅의 평화를 지키며 승리만을 떨칠수 있은것이 아니겠는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험준한 오성산칼벼랑길을 헤치시던 그때로부터 세월은 흘렀다. 그러나 오성산은 그이께서 위험천만한 전선길을 헤치시지 않으면 안되였던 선군혁명천만리의 만단사연을 전하여주며 오늘도 선군의 산악으로 거연히 솟아있다. 그리고 그이의 선군혁명령도의 불멸의 업적을 후세에 길이길이 전해주고있다.

원충국

섬초소가 전하는 이야기

지난 5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서남전선수역 최남단에 위치한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맞이한 장재도방어대의 군인들과 군인가족들은 멀고 험한 자기들의 섬초소에 또다시 찾아오신 최고사령관동지를 우러러 격정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화력진지들과 포은페부들을 돌아보시며 경상적인 전투동원실태를 료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장재도방어대에 새로 꾸린 바다물정제기실을 돌아보시였다. 바다물취수구를 통해 끌어올린 바다물이 려파탕크, 저장탕크, 정제수탕크, 정제기를 거쳐 맑고 시원한 담수로 전환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그이께서는 시간당 생산량이 대단하며 군인 일인당, 군인가족세대당 공급되는 량도 풍족하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섬초소군인들이 물걱정없이 생활하게 하려던 자신의 소원이 풀렸다고 격정에 겨워 말씀하시였다.

군인들과 군인가족들이 물이 정말 시원하고 막달다고, 우물을 리용할 때와 달리 두부도 잘되고 밥맛도 좋을뿐아니라 배탈이 전혀 없다고 한다는 한 지휘관의 보고를 받으신 그이께서는 기분이 좋고 막 날것만 같다고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이어 무도영웅방어대에도 들리신 그이께서는 새로 꾸린 바다물정제기실에 들리시여 몸소 물맛도 보아주시였다.

그날 방어대들의 병영과 식당, 남새온실과 축사, 세목장 등을 돌아보시면서 군인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신 그이께서는 섬초소군인들의 먹는물문제를 완전히 푼것이 제일 기쁘다고 말씀하시였다.

섬방어대군인들의 물문제를 두고 늘 마음쓰시며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에 현대적인 바다물정제기실을 꾸려주시고 그 리용정형을 료해하시기 위해 적아가 총부리를 겨누고있는 위험한 섬초소에까지 찾아오신 그이의 사랑에 군인들은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인민군대의 싸움준비완성에서 전투기술기재에 앞서 군인들의 물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보시고 친어버이심정으로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의 사랑은 그대로 군인들의 힘과 용맹이 되고 그들로 하여금 영웅적인 위훈을 떨치게 한 자양분으로 되였다.

《3.18혁명》과 《7.4혁명》, 7.28의 기적적승리,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에서의 완전성공도 국방과학자들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의 결정체이다.

주체적핵무력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치시고 깊은 밤, 이른새벽에도 국방과학자들과 함께 계시며 전략무기개발의 전과정을 현지지도하신 그이이시다. 그 나날 그이께서는 일군들이 과학자, 기술자들의 사업조건, 생활조건부터 풀어주는데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며 그를 위한 조치를 취해주시였고 주체적인 핵무력건설에서 세계를 놀래우는 기적적인 성과들이 이룩되였을 때에는 그 모든 공로를 국방과학자들에게 돌려주시고 경축공연과 성대한 연회까지 마련해주시였다.

섬초소군인들과 국방과학자들만이 아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맡기고 가신 군대와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열화같은 사랑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에나 다 찾아가시여 무한대한 힘과 용맹을 안겨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군인들을 믿고 끝없이 사랑하시고 군인들은 그이를 따르며 충정다하는 여기에 인민군대의 무진장한 힘의 원천, 승리의 요인이 있는것이다.

하기에 오늘 인민군대는 백전백승의 **김일성-김정일**군사전략전술을 소유하고 그 어떤 현대전에도 능히 대처할수 있는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들을 완비한 무진막강한 불패의 강군으로 그 위용을 더욱 높이 떨치게 되였다.

사랑하는 병사들을 위하여 심장을 불태우시며 정과 열을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주체100(2011)년 12월 30일]으로 높이 모시여 반드시 우리 조국은 반미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할것이며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것이다.

채희원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

인민의 부름-《우리 어머님》

올해 12월 24일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께서 탄생하신지 100돐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이날을 맞으며 조국인민들은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싸운 열렬한 혁명가이신 녀사의 거룩한 생애를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하여

녀사께서는 함경북도 회령시 오산덕동의 극빈한 농가에서 탄생하시였다.

당시 일제에게 군사적으로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하여 녀사의 일가분들은 모두가 떨쳐 일어나 용감하게 싸우시였다.

녀사의 아버님께서는 일찍부터 두만강을 넘나들며 반일독립운동을 벌리시다가 이국땅에서 한많은 생을 마치시였고 어머님께서도 남편의 애국투쟁을 적극 도우시며 자제분들을 열렬한 애국자로, 견결한 혁명투사로 키우시다가 일제의 《토벌》에 희생되시였다.

녀사의 오라버님이신 김기준동지는 능숙한 지하공작원으로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시다가 주체23(1934)년에 적들에게 학살당하시였다.

남동생이신 김기송동지 역시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아동단원이였다. 그는 유격구 아동단 나팔수로서 주체22(1933)년 12월 일제《토벌》대가 부암유격구에 달려들었을 때 근거지인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팔을 불며 적들을 유인하다가 장렬하게 희생되시였다.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녀사께서는 주체24(1935)년 9월에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시여 조국의 해방을 위한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항일의 명사수

녀사의 혁명생애와 업적은 총과 더불어 더욱 빛나고있다.

녀사께서는 항일의 나날 홍두산전투, 홍기하전투, 대사하치기전투를 비롯한 수많은 격전장에서 명사격술로 혼자서 많은 적들을 요정내시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을 결사옹위하시였다.

주체33(1944)년 3월 8일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조선인민혁명군 사격경기가 있었다. 사격경기에는 싸움판에서 명사수로 이름을 날린 많은 대원들이 참가하였다.

그날 경기종목은 보병총, 권총, 경기관총, 중기관총사격이였다. 사수들이 교대로 화선에 나가 사격술을 보여주었다.

드디여 차례가 되여 녀사께서도 화선에 나서시고 시선은 일시에 그이께 집중되였다.

사격구령과 함께 동시에 연방 세발의 총소리가 울렸다. 30점 명중이였다. 이어 200m, 300m목표들이 순식간에 명중되였다.

그 다음 목표는 100m거리에 세워놓은 다섯개의 병이였다.

사실 그 목표는 너무 작아 100m거리에서는 하나의 점으로 보이였다.

하지만 녀사께서 얼마 표준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속에 계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
(왼쪽으로부터 세번째 계시는분)

제사공장 로동자들속에 계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

하는 기미도 없이 쏘시자 다섯개의 병이 순식간에 박산났다.

권총사격에서도 능란한 사격술로 사람들을 놀래웠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경기총화에서 최고점수로 단연 1등을 하신 녀사께 소형권총을 직접 표창으로 수여해주시였다.

조사공들의 마음을 헤아리시여

조국이 해방된 후 주체36(1947)년 4월 녀사께서는 평양제사공장(당시)을 찾으시였다.

그이께서 조사직장에 들리시였을 때 공장일군들이 몹시 당황해하며 어머님께 여기에는 들어가시지 말고 다른 직장들을 돌아보셨으면 하는 의향을 말씀올렸다.

녀사께서는 조사공처녀들이 일하는 곳인데 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겠는가고 하시며 바닥이 질벅거리는 직장안으로 먼저 들어가시였다.

그이께서는 물에 떠내려오는 고치를 손으로 고르고있는 한 조사공처녀에게로 다가가시여 80℃가까이 되는 그 물에 손을 잠그어보시고나서 더운물에 험하게 된 조사공처녀의 손을 쥐신채 너무도 가슴이 아파 한동안 말씀을 못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흐느끼는 처녀의 어깨를 다정히 쓰다듬어주시고나서 이제는 나라가 해방되고 근로하는 인민의 세상이 되였으니 온 세상이 보란듯이 명랑하고 씩씩하게 살며 즐겁게 일하게 될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공장일군들에게 친부모가 되여 그들을 잘 돌봐주어야 하겠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손에 바르는 좋은 약과 함께 물방울이 튀여나도 옷이 젖지 않게 처녀들에게 고무앞치마를 해주라고 이르시고 공장안의 공기가 좋지 않으니 배풍기를 놓아야겠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일제침략자들이 강제로 끌어온 처녀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공장둘레에 높다랗게 쌓아올린 담장과 그우에 겹겹이 늘인 가시철조망을 보시고 가시줄을 걷어내고 담장도 낮추자고 하시였다.

영원한 그 부름-《우리 어머님》

흐르는 세월은 모든것에 망각을 가져온다고 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조국인민들은 녀사를 더 그리워하고있으며 《우리 어머님》이라고 정담아 부르며 따르고 있다.

해마다 그이께서 탄생하신 12월 24일이 오면 공장, 기업소, 학교, 가정 등 어디서나 어머님에 대한 노래를 부르며 그이를 추억하고있다.

그래서 조국인민들은 유서깊은 곳들에 백두산시절의 군복을 입으신 그이의 동상을 모시였다. 력사의 땅 회령, 김정숙군…

그리고 그이의 존함을 수많은 단위들에 명명하였다.

김정숙군, 김정숙휴양소, 김정숙탁아소,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이뿐만이 아니다.

김정숙녀사의 존함으로 세계여러 나라들에서 단체들이 결성되고 수많은 단위들이 명명되였으며 그이께 명예칭호와 훈장, 메달을 수여해드리였다.

주체61(1972)년 9월 녀사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가 수여되였다.

하기에 그이께서 탄생하신 12월 24일과 서거하신 9월 22일이 오면 평양의 대성산혁명렬사릉과 회령을 비롯하여 여러곳에 모신 그이의 동상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꽃송이와 꽃다발을 들고 찾아가고있다.

정녕 녀사의 한생은 길지 않았어도 조국과 혁명에 바친 위훈으로 가득찬 한생이였으며 고결하고 헌신적인 사랑의 한생이였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안철룡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탄생하신 회령의 고향집을 끊임없이 찾는 근로자들

국제적인 위인칭송열기

백두산절세위인들을 열렬히 칭송하는
제5차 백두산위인칭송국제축전 참가자들

백두산절세위인들을 인류의 영원한 태양, 불세출의 대성인으로 우러르는 만민칭송의 대하가 년대와 세기를 이어 더욱 뜨겁게 굽이치고있다.

그러한 가운데 지난 8월 조국에서는 제5차 백두산위인칭송국제축전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축전에는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국제준비위원회 명예위원장들과 공동위원장들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지역, 국제민주단체의 대표단, 대표들, 각계 인사들과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부 성원들, 조국에 체류하고있는 외국손님들, 해외동포들이 참가하였다.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에서 연설한 네팔공산당(맑스-레닌주의)중앙위원회 총비서는 인류력사에는 수많은 명인들이 기록되여있지만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처럼 생애의 전기간은 물론 서거하신 후에도 세기를 이어가며 세인의 다함없는 흠모와 칭송을 받으시는 위인은 일찌기 없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일성주석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인민대중의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여주신 위대한 사상리론가, 걸출한 정치가이시며 한 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다.

김정일각하는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시고 조선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빛내여주신 위대한 령도자이시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후의 저서들과 주체사상을 탐독하는것이 하나의 시대적흐름으로 되고있는 오늘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아시아태평양지역 토론회가 진행되고 나이제리아와 일본에서는 주체사상전국토론회, 에스빠냐와 베닌에서는 로작연구토론회, 스웨리예, 프랑스, 쓰르비아, 에짚트, 네팔, 파키스탄, 로므니아, 체스꼬, 벌가리아 등 세계 각국에서 경축집회, 업적토론회, 도서 및 사진전시회, 강연회, 좌담회, 영화감상회가 활발히 펼쳐졌으며 절세위인의 사상리론업적에 대한 찬탄의 목소리가 끝없이 울려나왔다.

토론자들은 주체위업, 세계자주화위업은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신 **김일성**주석에 의하여 개척되였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탁월한 령도밑에 조선은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전변되였다, 조선의 선군정치야말로 아프리카나라들이 본받아야 할 정치방식이다, 조선이 오늘과 같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로케트를 보유한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우뚝 솟아오를수 있은것은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심화발전시켜나가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고 토로하였다.

이와 함께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은 사회주의위업,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 새로운 활력을 부어주는 독창적이며 과학적인 사상리론으로 만방에 빛을 뿌리며 5대륙 곳곳에서 민족어문으로 출판, 발행되였다.

정녕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사상리론과 불멸의 업적은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시대의 요구, 인류의 미래까지 대표하는 가장 심원하고 선견지명있는 사상리론인것으로 하여 세계 진보적인민들속에서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누리에 빛을 뿌리고 있다.

본사기자 진룡진

법적으로 담보된다

- 김일성종합대학 법률대학 교원 박학수와 본사기자의 대담 -

기자: 오늘 조국인민들은 사회주의제도하에서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이 되여 자주적인간의 존엄을 빛내이며 참된 삶의 보람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조국인민들이 누리는 값높은 생활은 무엇보다도 정치분야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가 법적으로 어떻게 보장되고있는가 하는데서 나타난다고 본다.

사람이 살아가는데서 정치적권리와 자유를 보장받는가 보장받지 못하는가 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교원: 그렇다. 정치적권리와 자유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사람이 사회적존재이기때문이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게 된다. 사회생활에는 정치생활, 경제생활 등 여러 생활들이 있게 된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것은 정치생활이다.

자주적으로 살려는 사람의 요구는 무엇보다 자주적인 정치생활을 통하여 실현된다. 사람이 사회정치적으로 예속되여있으면 그 어떤 자주적인 생활도 할수 없다. 그러므로 사회적인간의 자주적권리는 무엇보다 정치생활에서 보장되여야 한다.

조국에서는 주체61(1972)년 12월 2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하여 공민의 정치적권리와 자유를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해주고있다.

기자: 사회주의헌법에서는 제66조에서부터 제69조까지를 공민의 정치적권리와 자유에 대하여 밝혀주고있다.

교원: 그렇다. 사회주의헌법에서는 우리 인민이 누구나 다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주권행사와 국가관리에 참가하도록 법적으로 규제하고있다.

그것은 우선 민주주의적이며 인민적인 선거제도를 통하여 훌륭히 보장되고있다.

선거제도는 현대의 가장 중요한 국가법률제도의 하나로서 해당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정치적권리와 자유를 집중적으로 반영한다. 그것은 선거가 해당 국가에서 공민들이 주권행사에 참가하는 기본형식이며 선거권이 공민이 가지는 최대의 정치적권리이기때문이다.

우리 공화국은 사회주의헌법에 기초하여 17살이상의 모든 공민들에게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고있다. 뿐만아니라 각급 주권기관대의원선거법과 선거규정들을 통하여 선거의 매 공정과 계기들에서 공민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언론, 출판, 집회, 시위, 결사를 비롯한 정치활동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여있다.

특히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것을 허용하여 신앙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해주고있다.

이와 함께 신소, 청원의 자유와 권리도 법적으로 담보해주고있다.

기자: 선거원칙도 인민들의 정치적권리와 자유에 부합되게 가장 민주주의적으로 규제되여있다고 본다.

교원: 사람들에게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며 인간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이 확립되여있다.

일반적이라고 할 때 그것은 모든 공민들이 17살에 이르기만 하면 누구나 제한없이 참가한다는것을 말해주고있으며 평등적이라고 할 때는 선거자들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평등하게 참가하는것이며 직접적이라고 할 때는 본인이 직접 투표하는것을 말해준다.

이 원칙들은 선거에서 진실성, 공정성, 정확성을 보장하는 가장 보편적의의를 가지는 선거원칙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에서는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선거에서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을 규제함으로써 공민의 권리와 자유를 훌륭히 보장하고있다.

기자: 오늘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인민이 직접 선거한 진정한 인민의 대표들로 구성되여 인민대중은 자기의 대표들을 통하여 주권을 당당히 행사하고있다.

교원: 옳은 말이다. 인민의 대표들로 구성된 주권기관들은 인민들을 위해 멸사복무하고있으며 인민들은 참다운 정치적권리와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 사회주의조국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있다.

앞으로도 조국인민들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것이다.

불굴의 기상, 멸적의 의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의 군대와 인민은 주체106(2017)년 한해를 불굴의 기상과 멸적의 의지를 안고 적대세력들의 온갖 도전과 자연의 횡포한 재난을 이겨내며 참으로 세인을 놀래우는 커다란 성과들을 련일, 련속 이룩하였다.

아래에 그 몇가지를 소개한다.

전민총돌격전을 힘있게 벌려

주체106(2017)년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군사적위협과 제재책동이 보다 상상을 초월하게 감행된 한해였다고 볼수 있다. 하지만 용수철이 눌리우면 눌리울수록 튕겨오르는 힘이 더 강해지는것처럼 조국의 천만군민은 자기들의 명줄을 끊어버리려고 날뛰는 적대세력들의 도전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의 힘과 지혜를 믿고 그에 의거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힘있게 풀어나갔다.

새해 정초부터 자체의 원료와 자재, 설비를 갖춘 평양가방공장을 보란듯이 일떠세운 조국인민들은 이어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 새로 이불생산공정을 그쯘하게 꾸려놓았는가 하면 고도로 현대화된 류경김치공장과 삼천메기공장 등을 곳곳마다에 일떠세웠다. 이와 함께 공장, 기업소들에서 원료, 연료, 설비의 주체화, 현대화를 실현해나갔으며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그 앞장에는 자력자강의 투쟁정신의 창조자들인 강원도인민들이 서있었으며 그들의 투쟁정신은 온 나라 전체 인민을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켰다. 하여 조국땅에 강원도정신이 나래치고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이 힘있게 벌어졌다. 그런 속에서 방대한 려명거리건설이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되였으며 조선로동당창건기념일인 10월 10일에 즈음하여 검덕광업련합기업소의 고경찬영웅소대는 3년분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는 기적을 창조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일으켜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하였다.

안주절연물공장은 지난 시기 일부 원료들을 수입에 의존하고있어 다른 공장보다 적대세력들의 제재책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하여 당시까지만 해도 년간계획수행은 생각도 못하고있었다. 주저앉느냐 아니면 맞받아나가느냐 하는 운명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였을 때 그들은 강원도사람들을 생각하였으며 그들의 창조기풍, 창조본때대로 일어나 사생결단의 의지를 안고 이 땅에서 수입원료에 못지 않는 원료원천을 찾아야 한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투쟁하였다. 끝내는 흔한 대용원료를 찾아낼수 있었고 질좋은 절연물과 함께 각종 칠감들을 마음먹은대로 생산해내여 공장의 모든 종업원들이 년간계획완수자로, 혁신자로 되였다.

이런 투쟁기풍은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함흥과 단천지구의 공장, 기업소, 광산들을 비롯하여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들속에서도 세차게 타번져 전력, 석탄, 주체철, 주체비료 등의 생산을 넘쳐 수행하게 하였다.

경공업공장들과 지방산업공장들에서도 적대세력의 제재책동이 그 어느때보다 가증되였지만 자체의 힘과 기술로 현대화를 힘있게 벌렸으며 그 어느때보다도 명제품, 명상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였다.

현실은 자기 힘과 지혜를 믿고 분발하여 일떠설 때 조국의 전민총돌격전은 적대세력들의 그 어떤 제재책동도 소용없으며 물거품으로 되고만다는것을 세상에 뚜렷이 보여주었다.

군민의 단합된 힘으로 재난을 가시다

승리에서 더 큰 승리에로 전진해가던 조국인민들에게 뜻하지 않는 재난이 닥쳐들었다. 지난 봄철 조국땅의 여러 지역에서는 지속되는 가물과 고온현상으로 애써 심어가꾼 농작물들의 생육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있었다.

이에 대처하여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모든 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가물을 이겨내고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도록 군대와 인민을 불러일으키시였다.

그이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나가며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조국의 군대와 인민은 그 즉시에 떨쳐나 가물과의 전투에 진입하였다. 황해남도에 달려나간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은 단숨에의 기상으로 단 며칠동안에만도 수천여개의 우물과 졸짱, 굴포, 수많은 물주머니를 만들어 물원천을 확보하였다. 한편 연안군 와룡지구의 강바닥파기와 제방보수공사장에 떨쳐나선 군대와 인민들은 처리해야 할 토량이 너무나 방대하였고 기계수단이 미처 도착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앉아 기다린것이 아니라 주저없이 전투에 진입하여 단 3일만에 공사를 완공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성과에 자만을 모르는 그들은 이어 지하수시설을 환원복구하거나 새로 만들고 물길건설 및 바닥가시기 등을 진행하여 수많은 물원천을 확보함으로써 수천여정보의 면적에서 가물피해를 완전히 극복할수 있었다.

가물피해막이전투에 떨쳐나선 위원회, 성, 중앙기관일군들과 종업원들도 일심단결의 힘으로, 군민협동작전으로 지하저수

려명거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생산적앙양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군대와 인민의 단합된 투쟁

지를 만들어놓고 하루 10시간 이상 물주기를 하면서도 수많은 굴포와 우물을 만드는 작업을 동시에 힘있게 벌리였다.

가물피해를 입은 도, 시, 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물론 지원자들도 가물과의 투쟁에 나선 주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갔다. 특히 들끓는 전투현장에 달려나온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은 노래도 불러주고 시도 읊으면서 가물과의 투쟁에 떨쳐나선 군대와 인민을 크게 감동시켰으며 그들이 더 큰 성과를 이룩하도록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하여 짧은 기간에 전국적으로 가물피해가 완전히 극복되게 되였다.

협동벌마다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하고 애국의 구슬땀으로 최악의 왕가물속에서도 전야를 푸르러 설레이게 한 군대와 인민의 투쟁의 나날은 력사적인 올해의 전투기록장에 특기할 페지를 남기였다.

리성친 반미대결전

주체106(2017)년 한해는 공화국의 전략적지위와 종합적국력이 비상히 높아진 특기할 해였으며 그것을 한사코 부정하고 공화국을 기어코 압살해보려고 미쳐날뛰는 미국과의 대결전이 말그대로 첨예한 한해였다.

돌이켜보면 한해도 안되는 사이에 공화국이 저들의 군사적도발과 제재책동에 대처하여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에서 완전성공한데 이어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형 등의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자 미국은 아연실색하였다. 사실 그때만이라도 미국이 공화국의 실체를 정확히 보고 리성적인 판단을 했어야 했다. 하지만 미국은 군사적도발과 제재책동을 보다 강화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공화국은 세기와 세기를 이어온 반미대결전을 총결산할 멸적의 의지속에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1차, 2차 시험에서 련속 성공하였다. 그리고 얼마후에는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하는 특대사변을 련이어 이룩하였다.

그러자 미국은 수소탄까지 보유한 공화국의 지위와 무게를 진중하게 헤아려보지 못하고 분주탕을 피우며 가장 야만적인 《제재결의》를 조작하는 한편 미국집권자인 트럼프까지 나서서 공화국을 《절멸》시키겠다고 마구 줴쳐댔다.

이에 대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미국의 늙다리미치광이를 반드시, 반드시 불로 다스릴것이라고 엄숙히 천명하시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등에서도 성명을 발표하여 분별없이 날뛰는 트럼프패거리들을 불도가니속에 처넣을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이런 불같은 멸적의 의지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집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성, 중앙기관집회, 평양시군중집회를 비롯하여 각 도, 시, 군의 군중집회들에서도 힘있게 울려퍼졌다.

천만군민이 활화산같은 분노속에 천백배의 복수를 다짐하였다.

《늙다리 트럼프가 다시는 그 더러운 주둥이를 함부로 놀려대지 못하게 그놈의 짐승상통에 불마당질을 해야 한다.》, 《우리 인민의 백년숙적, 불구대천의 철천지원쑤 미제를 철저히 소멸하자!》라고 하면서 조국의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최후공격명령만을 기다리였다.

조국의 군대와 인민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의 기본정신을 심장깊이 새기고 사회주의위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감으로써 혁명의 최후승리를 반드시 안아올것이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조선중앙통신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을 축하하는 평양시군민경축대회가 진행되였다.

대륙간탄도로케트《화성-14》형 2차 시험발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반미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안아올 의지가 지동친다.

《자기 힘과 지혜에 의거하라!》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는 오석산화강석광산 로동계급들도 서있다.

생산현장 그 어디에 가보아도 드높은 생산열의로 부글부글 끓고있다.

미제의 무분별한 제재소동에 파렬구를 내는듯 두개의 큰 산을 타고앉은 자행식대절기들이 화강석암반을 보기 좋게 가로썰고있으며 원석채취장에서는 덩지 큰 화강석을 실은 차들이 꼬리를 물고 오가고있다. 발파소리는 들리지 않아도 하루가 다르게 큰 산이 통채로 쑥쑥 낮아지고있다.

지난 시기의 낡은 수공업적방법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선진적인 원석생산방법을 받아들임으로써 광산은 해마다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끊임없이 돌파하고있다.

광산은 올해 10월에 3년분 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수행하였다.

몇해전부터 광산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자기의 힘으로 아름다운 조국의 래일을 가꾸어갈 불타는 애국적열의를 안고 원석채취로부터 석재가공에 이르는 모든 생산공정들을 활성화할수 있는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창안도입하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왔다.

자기 힘을 믿고 떨쳐나서기 위한 사업은 그대로 과학기술중시열풍으로 이어졌다.

광산에서는 원석생산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는데 맞게 낡은 대절기들의 능력을 높일뿐아니라 여러가지 기계설비들을 새로 제작완성하여 생산에 리용하였으며 수많은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할수 있는 부속품들도 자체의 힘으로 생산하였다.

각이한 형태와 크기의 석재들을 생산하는 가공장들에서는 절단, 연마, 운반 등 모든 작업공정들을 현대화하여 석재생산의 고속화, 정밀화를 실현해나가고있다.

지배인이 창안한 외기둥식 소형기중기는 수백kg의 석재를 한사람이 운반할수 있게 하였으며 광산에서 자체로 만든 원형란주가공기는 임의의 크기와 형태로 란주들을 생산하면서도 생산성은 종전보다 4배이상, 연마기와 돌다듬기는 매 제품당 가공시간을 절반으로 줄이였다.

광산종업원들은 자체의 힘으로 크고작은 석재가공 및 운반설비들의 작업능률을 높이였을뿐아니라 필요한 설비들도 새로 제작설치하였다.

광산에서는 백수십명의 로동자들이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대학에 입학하여 채취공학, 채취기계공학, 기계생산공학 등 생산장성에 필요한 과학기술을 배우고있다. 전체 성원들이 원격교육대학에 입학한 작업반도 있다.

광산지배인 로력영웅 창재룡은 이렇게 말하였다.

《사람들은 우리 광산이 어떻게 되여 상상을 초월하는 성과를 올릴수 있었는가고 그 비결을 묻군한다. 그러면 나는 광산로동계급을 대표하여 이렇게 말해주군 한다.

〈자기 힘과 지혜에 의거하라!〉라고.》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땅이 꺼지게 열매주렁지다

눈뿌리 아득히 펼쳐진 황해남도 과일군의 그 어디라 없이 사과나무마다에 알찬 열매들이 주렁졌다.

과일군의 일군인 황철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과일군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와 끊임없는 은정에 의하여 오늘 세계적으로도 그 규모를 떳떳이 자랑할수 있는 청춘과원, 과수농장으로 전변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지난해 우리 군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우리 나라 과일생산의 중심기지답게 과일생산량을 선진국가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그를 위한 은정깊은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과일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인민들에게 맛좋은 과일을 안겨주시려는 그이의 그 사랑,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하여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그들은 수백정보의 과수밭을 새로 개간하고 질좋은 흙보산비료를 비롯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매 과일나무마다 시비하였으며 해안연선 60여리구간에 방풍림을 조성하여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다.

그런가 하면 자체의 힘으로 한겨울의 추위속에서 농약생산공정을 일떠세우고 각종 농약들을 연구생산함으로써 올해 가물과 고온현상이 지속된 불리한 조건속에서도 지난해보다 정보당 수확고를 더욱 높일수 있게 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과수연구소의 연구사들은 과일생산을 과학화, 현대화, 집약화할 목표를 세우고 연구사업성과를 과수농장들에 널리 도입하고있으며 우량품종의 과일나무를 재배하고 종자개량을 꾸준히 진행하고있다.

이와 함께 기상기후조건에 맞게 매 작업반들이 과학적인 과수작업을 진행하도록 통일적인 지휘체계를 실현하였다.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는 일터에서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한그루, 한그루의 과일나무마다에 자기들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올해 과일군을 현지지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가지가 휘여지게 달린 사과알들을 한알한알 만져보시며 이런것을 보고 땅이 꺼지게 열매가 주렁졌다고 말한다고 하시면서 정보당 70~80t의 과일을 생산한 과수작업반들이 수다하다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그루당 평균 200알이상, 최고 300알이상 달린 사과나무들도 많다는데 끔찍이도 많이 달렸다고 대단히 만족해하시였다.

지금 과일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신 과업을 관철하여 래년에도 풍요한 과일대풍을 안아오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글 본사기자 진룡진
사진 조선중앙통신

푸른 숲의 억센 뿌리

강영수

평안북도 운산군 북진로동자구에 가면 산림조성에 묵묵히 땀을 바쳐가고있는 한가정이 있다.

그들이 바로 산림감독원인 강영수와 그의 가족성원들이다.

강영수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 사업을 하고있다. 그의 아버지 강윤경으로 말하면 조선예술영화 《숲은 설레인다》의 원형인물로서 지난 조국해방전쟁(1950년-1953년)시기 벌거숭이가 되였던 고향땅의 산을 자진하여 말아안고 수많은 잣나무림, 이깔나무림 등은 물론 약초밭까지 조성하여 산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켰다. 하지만 그가 세상을 떠난 지난 고난의 행군시기에는 그 울창했던 숲도 점차 손상되여갔다. 당시 군사복무를 마치고 고향에 돌아와 그 산들을 보는 강영수의 마음은 아팠다.

(나라의 재부이고 아버지가 한생을 바쳐 가꾸어온 숲을 그대로 내버려둘수는 없다.)

하여 강영수는 가족, 형제들과 토론하고 산림복구사업에 나서게 되였다. 나라에서도 그들의 결심을 지지해주고 적극 떠밀어주었다. 첫걸음을 뗀 그와 가족성원들이였지만 일은 순조롭지 않았다. 해보지 않던 일인것으로 하여 힘이 부치여 동요하고 주저앉으려고도 하였다. 사실 강영수의 안해만 보아도 시내에서 살았고 동생들도 교원을 하다보니 언제 그런 일을 해본적이 없었던것이였다. 결코 욕망만 가지고 할수 있는 일이 아니였다.

강영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다 아는 일이지만 아버지가 처음 이 돌박산, 버럭산에 나무를 심으려 할 때 일부 사람들은 되지도 않을 일을 시작한다고 하면서 그만두라고 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조국땅에 숲이 우거지게 하는것은 자기가 말은 의무이기 전에 인간의 량심이라고 하면서 신발창이 닳도록 산을 오르내리며 나무를 심고 또 심었다. 휴식일, 명절날이 따로 없이 말이다.

왜 그랬겠니. 자기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에서였다. 나는 아버지의 뒤를 잇는 우리가 먼저 이 마음부터 이어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족성원들은 그의 말에서 자신들을 돌이켜보았고 산림조성에 더욱 분발해나섰다. 돌을 들어내고 검불을 걷어내여 첫해에 나무모밭을 1정보 조성하고 그 다음해에는 2정보, 이렇게 해마다 늘여나갔다. 그리고 산림조성과 관련한 책들을 읽고 배우면서 정성다해 나무모를 길러 산들에 옮겨심고 가꾸었다. 그러한 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모습은 삶의 거울이였다.

《사람이란 어려울 때가 생기면 자기보다 더 어려운 고난을 이겨내며 나라를 위해 산 사람의 모범과 정신을 생각하면 절대로 굴하지 않으며 자기의 결심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강영수의 누이동생들은 자기들은 지난 기간 힘들 때면 늘 아버지를 생각하며 힘을 얻었고 아버지처럼 나무를 심고 가꾸려고 애썼다고 하였다.

실지 그들은 휴식일이 따로없이 일하였고 작업성원들이 집으로 향할 때에도 가족성원들은 산으로 향하며 일을 두몫, 세몫하는것을 응당한것으로 여기였다.

《그 과정에 우리는 시아버지가 지녔던 애국의 마음을 다소나마 알게 되였지만 아직 시아버지처럼 살자면 멀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며 강영수의 안해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전에는 가족성원들속에서 자기들이 가꾼 산열매와 약초라해서 마음대로 쓰려고 한적도 있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주민들이 생나무를 찍게 되면 말없이 강대를 해다가 그 집에 날라다주고 많은 약초밭이 있었어도 시어머니병에 쓰려고 읍지구에서 약초를 사왔다는 이야기를 되새겨보며 마음을 다잡아나갔다고 하였다.

자기보다 나라를 위하는 소중한 마음이 있어 강영수와 그 가족성원들은 첫걸음을 뗀 그때로부터 오늘까지 손상된 산을 완전히 복구하였을뿐아니라 수많은 잣나무림, 이깔나무림 등과 뗄나무림을 조성하고 많은 양묘장과 약초밭을 더 조성하여 산을 다시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키였다.

나라에서는 강영수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그를 국가적인 대회의 대표로 불러주었으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의 자리에도 내세워주었다.

아버지가 그러했던것처럼 조국의 푸른 숲을 더 잘 가꾸어가려는 그들의 열의는 오늘 보다 높아지고있다. 그 열의를 안고 얼마전 강영수의 아들 강철이 대학을 졸업하고 할아버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를 이어 거목을 받드는 억센 뿌리가 될 의지를 안고 산림감독원이 되였다.

아들과 함께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가족소대원들

방문기

활짝 피여라, 온 세상이 보란듯이

- 조선장애자예술협회를 찾아서 -

얼마전 우리는 문수지구에 위치한 조선장애자예술협회를 찾았다.

우리를 반갑게 맞이한 서기장 차혁은 주체100(2011)년 12월에 창립된 조선장애자예술협회는 장애자들에게 문예활동조건을 충분히 마련해주고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의 안내를 받으며 우리는 먼저 무용소조실로 걸음을 옮기였다.

무용소조생들은 모두가 청력장애자들이였다. 소조실에서는 음악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지만 무용수들은 지도교원 전경심의 손동작 하나, 눈빛 하나도 놓침이 없이 손박자에 따라 동작들을 원만히 수행하고있었다.

전경심은 《지금 훈련하고있는 무용 〈모르는가봐〉는 남새온실처녀들의 생활을 반영한 새 작품입니다. 작품을 거의 완성했는데 한번 보겠습니까.》라고 말하는것이였다.

뒤이어 《모르는가봐》의 흥겨운 음악소리가 울려나오자 무용소조원들은 평시에 련마한 자기들의 무용동작들을 잘 째인 안삼블과 풍부한 감정 등으로 펼쳐보이였다.

우리는 아마 관중들이 무용전문가들도 무색케 할 정도로 높은 기술을 발휘하고있는 이들을 본다면 청력장애자들이라고는 상상도 못할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장애자들이 출연하는 공연의 일부

우리와 만난 청력장애자 류진혁은 지난 기간 협회안의 장애자예술인들이 영국과 프랑스에서 공연을 진행하고 대파문을 일으키자 부모들은 문밖에 내보내기도 저어하던 자기 자식들이 조국의 품속에서 온 나라의 자랑거리가 되였다고 말했다는것을 손말로 표현하였는데 전경심지도교원이 그 뜻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해주었다.

우리가 성악소조실에 들어섰을 때 그곳에서는 시력장애자들이 지도교원 리선영의 피아노반주에 맞추어 《어머니당에 드리는 노래》를 부르고있었다.

리선영은 성악소조의 리강령, 배옥림, 박진리, 안류성, 전유경은 노래뿐만아니라 한가지이상의 악기를 능숙하게 다루는 맹인악단의 연주가들이라고 소개하였다.

배옥림은 《나는 비록 두눈을 보지 못하지만 심장으로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조국과 친근한 사람들을 보고있습니다. 나는 세상사람들에게 조선의 장애자들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 예술활동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고 말하였다.

그들의 노래소리를 뒤에 남기고 성악실을 나선 우리는 기악소조실, 정보기술보급실을 돌아보고 악기제작실에도 들리였다.

악기제작실에는 남달리 손재간이 있는 청력장애자나 신체장애자들이 바이올린, 소해금을 비롯한 현악기들을 만들수 있도록 설비와 공구, 자재들이 충분히 갖추어져있었다.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수 있는 악기를 만드는것이 바로 그들의 목표이라고 한다.

우리는 자기가 온 나라의 자랑거리로 되였다는 청력장애자 류진혁의 심장의 목소리가 되새겨졌다.

새겨볼수록 우리 조국의 장애자들의 행복상이 안겨오는 참으로 의미깊은 말이였다.

장애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뭇사람들의 동정을 받으며 사는것을 숙명으로 여기던 때와는 달리, 또 먹고살기 위해 춤과 노래를 팔던 때와는 달리 공화국이 세워진 후부터 높아져 그들도 공민의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며 밝고 명랑하게 살아나가고있었다.

우리는 장애자예술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다시한번 살펴보며 이렇게 속삭이고싶었다.

《활짝 피여나거라, 온 세상이 보란듯이!》

우리는 그들의 모습도 함께 비껴 더 아름다와질 조국의 래일을 그려보며 조선장애자예술협회를 나섰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더 훌륭한 예술작품들을 창작하기 위해

예술공연준비

악기도 자체로 제작한다.

제20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

우리 민족의 기상과 넋이 깃든 정통무도 태권도.

오늘 태권도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 급속히 보급되고있으며 태권도를 배우려는 애호가들의 지향과 열의도 나날이 높아가고있다.

그러한 속에 제20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가 지난 9월 태권도의 모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의 태권도전당에서 진행되였다.

조국인민들과 세계인민들, 태권도인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진행된 선수권대회에는 우리나라와 로씨야, 몽골, 벌가리아, 중국, 체스꼬를 비롯한 세계 69개 나라와 지역의 선수단, 대표단들이 참가하였다.

지난 시기 여러 선수권대회들에서 순위권에 입선한 우수한 선수들이 참가한 남녀개인틀경기와 집체틀경기는 관람자들의 커다란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동작의 정확성과 일치성, 속도와 힘, 균형, 률동 등 모든 세부들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태권도선수들에게 관람자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였다.

틀경기에서는 높은 경지에 오른 정통태권도의 위력과 발전수준을 잘 보여준 우리 나라 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을 쟁취하였다.

태권도경기의 가장 인기있는 종목인 맞서기는 시작부터 관람자들의 손에 땀을 쥐게 하였다.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은 공격과 방어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뛰며돌려차기, 주먹지르기, 뜨며앞차기, 옆차기 등 다양한 타격기술, 완강한 투지와 인내력으로 인상깊은 경기장면들을 련이어 펼쳐보이였다.

특기, 위력경기에서 뛰며돌려차기, 반대돌려차기, 360° 돌아옆차기를 비롯한 기술동작들을 손색없이 수행하고 빠른 속도와 폭발적인 힘으로 각이한 위치에 있는 목표물들을 단번에 격파하는 선수들의 경기장면은 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빠른 정황판단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포착하고 위력하면서도 재치있는 타격들과 꺾기, 메치기 등 여러가지 기술수법으로 적수들을 순식간에 제압하는 호신경기는 시종 열기를 띠였다.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이 재치있는 기술동작들을 수행할 때마다 관람석에서는 환호와 찬탄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우리 나라 선수들은 이번 경기들에서 평시에 련마한 높은 기술과 완강한 투지로 우승컵 3개, 금메달 22개, 은메달 9개, 동메달 4개를 쟁취하고 나라별종합순위에서 1위를 함으로써 태권도 모국의 존엄과 영예를 높이 떨치였다.

이번 선수권대회에서 2위는 로씨야, 3위는 체스꼬가 각각 차지하였다.

대회기간 선수들은 높은 기술과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발휘하여 정통태권도의 우수성과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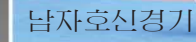
개막공연의 일부

녀자특기

남자호신경기

남자위력

남자개인맞서기

남자단체틀경기

녀자단체맞서기에서 우승한 우리 나라선수들과 로씨야, 체스꼬, 벌가리아선수들

남자특기

글 본사기자 전룡진
사진 본사기자 임철명

애착심을 안고 근 40년

과학자, 기술자들은 물론 일군들치고 중앙과학기술통보사에서 내보내는 새로운 과학기술자료들을 보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있다.

《새로운 과학기술자료들은 그 하나하나가 내용이 풍부하고 일목료연하다. 그것은 사람들을 첨단과학기술로 무장시키고 그들을 계발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하다.》

오늘 새로운 과학기술자료들이 이처럼 많은 사람들로부터 즐겨 읽히우게 된데는 중앙과학기술통보사 교열원 부일수의 지혜와 열정이 크게 깃들어있다.

그가 김책공업대학(당시)을 졸업하고 중앙과학기술통보사에서 일하고있는지도 근 40년이나 된다.

그 나날 그는 독자들을 위한 새로운 과학기술자료들의 내용을 참신하게 그리고 더 첨부하기 위해 늘 사색을 거듭하였고 정열적으로 학습하였다.

부일수

그가 과학기술자료들을 종합하고 분석하면서 제일 깊은 관심을 돌린것은 하나의 과학기술소식을 실어도 그것이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이바지될수 있게 종자를 바로 잡는것이였다. 이를 위해 그는 나라의 과학기술정책과 경제정책에 대한 학습을 깊이있게 하는것을 언제나 자기 사업의 첫자리에 놓고있다. 그리고 하나의 최신과학기술소식을 실어도 독자들로 하여금 깊이있게 인식되도록 하기 위해 애를 썼다.

귀국하기 전 가족들과 함께 있는 부일수
(뒤줄 오른쪽에서 두번째)

기자들과 자주 만나 각이한 독자들을 대상하고있는것만큼 과학성과 론리성, 통속성을 보장하도록 조언도 주고 집필도 지도해주었으며 도움이 될만 한 참고서들도 구해주고 자신이 직접 가치있는 자료들도 넘겨주어 완성시켜주기도 하였다.

교열사업으로 시간이 바쁜 그였지만 짬시간마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대한 학습을 놓치지 않고있다.

새로운 과학기술자료들이 인민경제 많은 부문을 포괄하고 있는 조건에서 그는 다방면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배가의 노력을 가하고있다.

다방면적인 세계첨단과학기술자료들을 모르고서는 새로운 과학기술자료들을 독자들의 요구수준에 맞게 묶어낼수 없다는것이 그의 지론이다.

그와 함께 일하는 최두룡은 이렇게 말하였다.

언제나 젊음에 넘쳐

《그는 실력가이다. 우리가 집필하는 새로운 과학기술자료들이 최종적으로는 그에 의하여 종합되고 분석되는데 이것은 해당 부문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실지 그가 지닌 지식의 범위는 대단히 넓다. 전력, 석탄, 금속, 기계, 농업, 수산업, 경공업, 기초과학 등에 이르기까지 거의나 모르는것이 없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그는 4개 나라의 말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구사하고 사전의 도움이 없이도 원서들을 보고있다.

그의 이러한 풍부한 지식과 높은 실력은 결코 쉽게 이루어진것이 아니다.

때로는 어느 한 부문의 도서를 구하기 위해 해당 부문의 권위자들을 찾아 밤길을 걷기도 하였고 어떤 때에는 그자신이 필요한 과학기술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밤을 밝힐 때도 있었다.

과학기술서적들과 외국문헌들을 얼마나 보고 또 보았는지 사무실과 집의 책장에 있는 책들과 일본어, 로어, 영어, 중어사전들이 보풀이 일어 보기 힘들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가 지닌 학구적인 자세를 잘 알수 있다.

뿐만아니라 그는 많은 과학기술도서들을 편찬하는데도 참가하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적극 기여하였다. 그 공로로 하여 그는 공훈기자의 칭호를 받았다.

공훈기자의 칭호를 받던 날 축하해주는 동무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일본에서 혼자 조국의 품에 안긴 사람이다. 그러한 나를 조국에서는 입혀주고 공부시켜주었으며 걸음걸음 보살펴주었다. 나라의 그 고마움에 보답하려면 아직 멀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비록 자기가 하는 일이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아도 깨끗한 량심과 높은 실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밑거름이 되는 길에서 삶의 보람과 긍지를 찾고있는 부일수이다.

그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변함없이 그 길을 걷고있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휴식일에 가족들과 함께

조선속담 (바쁨)

- 다리에 자개바람이 일다

두다리를 몹시 재게 움직여 빨리 걷는 모양을 비겨 이르는 말.

- 대사집 맏며느리

대사를 치르는 집의 맏며느리는 복잡한 모든 부엌일을 살펴야 하므로 정신을 차릴수 없게 된다는데서 바쁜통에 휩쓸려 어리둥절해진 사람을 이르던 말.

- 치마끄리에서 비파소리가 난다

몹시 날래고 분주하게 싸다니는 녀자를 비웃어 이르던 말.

- 한 가랭이에 두다리 넣는다

한 가랭이에 두다리를 다 넣는다는 뜻으로 바빠서 정신없이 돌아치는 모양을 비겨 이르는 말.

- 부지깽이가 곤두선다

부지깽이까지도 곤두설 정도로 몹시 바쁘다는 뜻으로 일손이 몹시 딸리도록 일이 매우 바쁘다는것을 비겨 이르는 말.

고향소식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일고있는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자력자강으로 들끓는 도시

우리는 얼마전 미국의 제재소동을 짓부시며 전진하는 조국의 모습을 지면에 담기 위해 황해북도 송림시에 대한 취재길에 올랐다.

송림시에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큰 역할을 하고있는 황해제철련합기업소가 자리잡고있다. 송림시의 용해공거리에 들어서는 우리의 눈앞에 출근길에 오른 용해공들의 힘찬 모습이 안겨들었다. 정세가 나날이 긴장해지지만 그들은 비관을 모르고 신심에 넘쳐있었다.

우리는 용해공들속에서 중국에서 살고있는 김택룡동포의 사촌동생 차영식을 만날수 있었다. 그는 기업소의 전기수리직장에서 일하다가 비록 년로보장으로 넘어는 갔지만 아직 오륙이 성성한데 어떻게 가만히 집에 있겠는가고 하면서 자진하여 직장에 나간다고 하였다. 사실 그는 평양미술종합대학입학통지서를 받은 아들 차광룡을 위해 하루쯤 시간을 낼 생각이였는데 적대세력들이 우리를 어째보려고 하는 때에 제 집안일부터 먼저 생각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앞서 이렇게 출근길에 나섰다고 말하는것이였다. 하여 우리는 오랜 기능공이였던 그와 함께 제철소로 향하였다. 도중에 차영식은 학생소년회관을 가리키며 몇해전 이곳에 왔던 사촌형이 회관을 짓는 건설자들과 함께 일도 하고 지원품도 넘겨주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일떠선 회관에서 자란 자식이 이제는 대학으로 가게 되였다고, 이 소식을 알게 되면 형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고 하는것이였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며 용해공거리를 일별해보니 송림시가 확실히 나날이 자기의 면모를 일신해가고있다는것이 눈에 띄게 알리였다. 곳곳마다에 살림집들과 문화후생시설들이 일떠서고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게 될 김치공장건설 등이 마감단계에서 진행되고있었는데 그 대상들이 완공되면 용해공들의 생활조건이 보다 좋아질것이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었다. 그럴수록 제손으로 행복을 창조해가는 송림사람들의 열의가 돋보이였다. 그런 열의는 황해제철련합기업소 특히 주체철이 생산되는 산소열법용광로에서 보다 강렬하였다. 이곳에서 쇠물이 쏟아져나오는 모습도 볼만 하였지만 보다는 주체철이 이곳 기업소로동계급이 창조한 자력자강의 산물이라는데 그 의의가 더 컸다.

우리 나라의 원료에 의거한 전극을 리용하는 초고전력전기로의 운영과 련속용해 또한 그러하였다.

로장 리니원은 우리에게 미국의 전쟁미치광이 트럼프가 우리 공화국에 대해 《절멸》이요 뭐요 하며 마구 줴쳐대고 적대세력들의 제재책동이 강화될수록 자기들은 자강력을 더욱 발휘해나가고있다고 하면서 최근에만도 직장에서는 과학기술을 앞세워 용광로의 합리적인 원료배합비와 용해조작방법을 실현한데 이어 지금은 자체의 실정에 맞게 산소분리기의 주파수변환기와 조종프로그람 등을 자체로 개발하여 도입하였는데 성능이 대단히 좋다고, 그로 하여 일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고 하는것이였다.

조강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곳에서는 가열로에서 나온 강편이 불과 몇분사이에 중량레루로 되여 척척 쌓여지고있었는데 생산장성의 비결은 설비와 부속품들을 주체화, 현대화한데 있다고 직장로동계급은 긍지에 넘쳐 말하였다. 직장에서는 기술자들과 힘을 합쳐 조종체계설계를 새로 완성한데 기초하여 조종배전반을 제작완성하였고 중량레루용깔판, 여러가지 축강과 구형강 등을 창안하고 생산하여 리용하고있었다.

자력자강의 숨결은 시에 있는 3.8닭공장과 송림항에서도 느낄수 있었다. 지난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그러하였지만 지금도 용해공들에 대한 닭알과 닭고기공급을 중단함이 없이 보장하는 3.8닭공장의 종업원들의 일본새는 참으로 감동적이였다. 그런가 하면 일터와 생산설비를 개건하고 종업원들의 후방사업을 윤택이 나게 잘해나가는 송림항사람들의 일욕심 또한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특히 멋들어지게 꾸려진 송림항의 모습도 볼만 하였지만 그들의 지혜와 열정이 깃든 항만기중기와 원격측정체계, CNC설비 등은 보다 놀라움을 자아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설비와 부속품들이 비록 번쩍거리지는 않아도 자기의 힘과, 기술, 원료, 자재로 만든것이여서 소중한것이고 적대세력들의 제재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드는것이여서 더 귀중한것이라고, 앞으로도 이 자강력을 더 높이 발휘해나갈것이라고 하였다.

이런 창조기풍, 창조본때는 우리가 만나본 사람들 그 누구나가 지니고있었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송림시의 전경을 다시금 바라보았다. 그리고 생각하였다. 과연 이런 사람들의 앞길을 제재소동으로 막아보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가를.

우리는 자력자강으로 들끓는 송림시와 더불어 그것을 원동력으로 하여 솟구치며 전진해가는 조국의 최후승리는 반드시 확정적이라는 확신을 보다 굳게 가지게 되였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중국에서 살고있는 김택룡동포의 사촌동생 차영식의 가정

송림시학생소년회관에서

송림항

중국 료녕성 반금시 대구현 영흥농장 류광희외삼촌 앞

민족의 넋을 간직하고

외삼촌, 안녕하십니까.

이해를 보내고 새해를 앞두고보니 어쩐지 외삼촌생각이 더 납니다. 그곳의 날씨는 어떤지, 건강이 좋지 못한 외삼촌이 혹시 감기에라도 걸리지 않았는지 걱정됩니다. 삼촌어머니랑 사촌동생들인 기연, 기육이도 별일없는지, 외삼촌이 그렇게 자랑하던 손자들도 퍽 컸겠습니다.

외삼촌을 만나본지도 10년세월이 되여오는것 같습니다. 정말이지 해가 바뀔수록 외삼촌을 만나보고싶은 마음이 더해집니다.

생각해보면 외삼촌이 평양에 왔을 때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일에 무엇인가 기여해보려고 애쓰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삼삼합니다.

자신과 가정보다 앞서 조국을 먼저 생각하고 언제나 변함없이 조국과 숨결을 같이하며 애국사업에 헌신한 외삼촌이였습니다.

저는 그런 외삼촌이 있는것을 더없는 자랑으로 여기고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외삼촌이 그러한것처럼 중국에 살고있는 혈육들모두가 민족의 넋을 간직하고 꿋꿋이 생활해가고있는것이 또한 저에게 힘을 주고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우리 형제, 친척들이 비록 이역에 살고있어도 우리 말과 풍속을 살려나가고있는것과 특히 사촌동생들이 외삼촌의 뒤를 이어 애국의 길을 걷고있는 모습은 언제나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곳에서 혈육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자식들앞에 펼쳐놓고 이야기해주군 합니다. 너희들도 해외에 있는 혈육들을 잊지 말고 자기 맡은 일들을 더 잘하여 나라에 이바지해야 한다고말입니다.

외삼촌도 아시다싶이 지금 조국에서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을 전률시키며 대륙간탄도로케트들의 련속적인 뢰성에 이어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에서도 완전성공하는 특대사변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식들에 접할때마다 무비의 담력과 담대한 배짱을 지니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높이 모시여 우리 조국의 위력이 비상히 강화되고 이제는 우리 조국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으며 최후승리의 그날도 눈앞에 다가오고있다는 확신이 더 크게 안겨옵니다. 사람들마다 얼마나 신심에 넘쳐있는지 모릅니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제아무리 침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려놓고 야만적인 제재책동에 매여달리고있지만 우리 사람들은 코방귀를 뀌며 해볼테면 해보자고 벼르고있습니다.

지금 조국의 군대와 인민은 적들의 발악적인 책동을 짓부셔버리고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기 위한 전민총돌격전을 보다 힘있게 벌려나가고있습니다.

머지않아 다가올 승리의 그날을 확신하며 나와 우리 가정도 그 어느때보다 더 분발하여 일하고있습니다. 편의봉사부문에서 일하는 저와 집사람은 군내인민들에 대한 봉사사업을 더 잘하기 위해 애쓰고있으며 자식들도 직장들에서 로력혁신자로 자기 몫을 단단히 하고있습니다.

그럼 조국을 한시도 잊지 못하시는 외삼촌을 비롯한 혈육들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조국의 힘찬 투쟁과 발전을 위해 힘껏 노력해주길 바라면서 이만 펜을 놓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시 만날 그날을 그려보면서.

평안북도 향산군 읍 70인민반 백윤철 올림

한해 취재수첩을 펼치고

동포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취재수첩을 펼쳐보며 여러분과 함께 걸어온 2017년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습니다.

취재수첩을 한장두장 번져가느라니 문득 우리의 손에 들려진 이 수첩이 결코 가볍게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온 한해 동포여러분의 굳센 신념과 의지, 애국의 불타는 뜻에 의해 우리 조국의 걸음이 더욱 빨라졌을것이라는 생각이 마음에 충동을 불러일으킨것 같습니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새해 2017년의 첫 아침에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를 시청한 동포들은 조직별로 모여앉아 신년사학습을 자자구구하였습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국장 김영희동포는 력사적인 7.4공동성명발표 마흔다섯돐과 10.4선언발표 열돐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고 하였으며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 부국장 방영선동포는 인민의 참된 충복, 충실한 심부름군이 될것을 새해의 첫 아침에 엄숙히 맹약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는 자기의 가슴을 뜨겁게 하였다고 하면서 동포사업을 더 잘해나갈 결의를 다지였습니다.

뜻깊은 태양절과 광명성절을 맞으며 성황리에 진행된 **김일성**화축전, **김정일**화축전에 향기그윽한 꽃송이들을 피워올린 해외동포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봄날 조국을 방문한 로씨야와 끼르기즈스딴의 해외동포들은 조선우표박물관과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김정숙평양제사공장 등을 돌아보고 감탄을 금치 못해하면서 《서방의 선전은 다 거짓이다. 고국이야말로 인민의 참세상이다.》라고 저마다 토로하였습니다.

지난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애국상을 수여받은 재카나다의 김원백동포는 올해에도 수차례 조국을 찾아 푸른 숲을 가꾸고 통일사업에 앞장서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올해 조국에서 진행된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형,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1차, 2차 시험발사와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 등은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본적 없는 특대사변으로서 해외동포들에게도 커다란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일본과 중국, 로씨야, 미국, 카나다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살고있는 수많은 동포들은 반박근혜투쟁과 미제의 싸드배치반대투쟁을 힘있게 벌린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것을 비롯하여 반미반전반괴뢰투쟁과 함께 조국의 통일을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리였습니다.

해외동포들에게 안겨지는 조국의 사랑은 해가 갈수록 더욱 뜨거워지고있습니다.

1월초 뜻밖의 중병으로 평양친선병원에 실려간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천재련동포는 무려 60여일간이나 돈 한푼 내지 않고 무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원장을 비롯한 의료일군들은 그를 자주 찾아가 병상태도 알아보면서 친혈육의 정을 다 안겨주었습니다.

조국에서는 재중동포들에게 칠보산과 금강산관광의 길도 열어주었습니다.

지난 7월초 칠보산관광의 길에 올랐던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성원들은 조국인민들과 마치 한집안식솔처럼 함께 식사도 밤샘도 할수 있는 민박숙소에서 생활한것이 특색있다, 조국인민들이 훌륭한 휴양지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는 모습을 보니 남녘의 인민들도 다같이 칠보산경치를 구경하였으면 좋겠다, 통일을 위해 동포들모두가 앞장에 서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금강산을 다녀온 후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성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감사의 인사와 함께 어떤 풍파가 몰아쳐온대도 일편단심 그이만을 받들어갈 불타는 맹세를 담은 편지를 삼가 올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외동포들에 대한 조국의 사랑과 믿음은 변함이 없으며 조선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깊이 안고 통일애국사업에 떨쳐나설 동포들의 열의 또한 피처럼 진하고 용암처럼 뜨겁다는것을 우리는 잘 알고있습니다.

그럼 2018년의 새 아침을 향하여 우리 함께 마음도 걸음도 더 힘차게 옮겨갑시다.

《금수강산》편집부

고국인민의 정신력에 탄복했다

내가 평양에 다니기 시작한지는 몇년 잘된다.

지금 해외에 살고 있는 동포들뿐아니라 많은 나라의 기업가들이 고국의 경제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고있다.

그래 나도 고국에 무엇인가 보탬을 줄 생각으로 비록 크지는 않지만 평양에 대리점을 내오고 고국과 경제교류를 하고있다.

그 사업은 한해가 다르게 잘되여가고있다.

그런데 이렇게 평양에 오니 얼마 안있어 제20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되였다.

이번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공화국의 정당한 자위적핵억제력강화조치에 대해 어쩌구저쩌구하면서 갖은 책동을 다 하고있는 시기에 열리는것으로 하여 내외의 관심을 더욱 모았다.

기회는 언제나 있는것이 아니다.

나는 부랴부랴 참가신청서를 냈다.

나는 이번 전람회에 사전준비가 없이 바쁘게 참가하다보니 의료기구 한점밖에 출품하지 못하였지만 그 대신 고국에 대해 더 잘 알수 있는 좋은 계기로 되였다. 전람회는 참가한 나라수나 규모, 출품된 제품의 종류와 가지수에 있어서 모두 나의 상상을 초월하였다.

그렇게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중국과 로씨야, 유럽과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서도 참가하였을뿐아니라 전람회에 출품된 고국의 모든 제품들가운데는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제품들이 많았다.

날로 가중되는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속에서도 자강력을 최대로 발휘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고국인민들의 정신력에 나는 탄복하지 않을수 없었다.

전람회기간은 길지 않았지만 평범한 해외동포인 나에게 애국심을 안겨준 참으로 잊지 못할 나날이였다.

중국 료녕성대련고려련합무역유한공사
경리 최만홍

[주체106(2017)년 5월]

고국은 강국이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본대로 말할뿐아니라 자기의 눈으로 본것만을 믿어야 한다.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조선이 발전되지 못하였다고 쉬임없이 비방중상하는 서방언론의 그릇된 선전을 그대로 믿어왔다.

이렇게 고국을 처음으로 방문하여 평화롭고 문명하며 행복한 인민들의 모습, 깨끗하고 훌륭한 거리와 손색없이 세워진 기념비적건축물들을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되니 뒤늦게 온것이 정말 후회가 된다.

지난 시기 나는 세계의 여러 나라들을 다녀보았지만 고국과 같이 자기 인민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는 나라는 처음 보았다.

고국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제재와 압살책동속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키며 사회주의강국의 휘황한 설계도따라 자기 발전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고있다.

경제가 발전하고 핵을 쥐고있다고 하여 강국이라고 말할수 있는것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경제강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들에도 거리마다 집없는 사람들과 실업자들이 떼를 지어있고 군사강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미국앞에서는 절절 기고있다. 바로 이것이 오늘의 세계이다.

하지만 고국은 그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굽신거리지 않고 자기가 할 일과 할 소리를 다하고있다.

그것은 고국이 절세위인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고있기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고국인민의 한결같은 지지와 신뢰를 받고있는 조선로동당이 위대하기때문이다.

정말 고국의 앞길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휘황찬란하다. 나는 그이께서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이가 계시여 고국은 강국이다.

끼르기즈스딴고려인통일련합회 주 알라

민족성을 고수해나가는 길에서

지난 9월 재일동포녀성들은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창립 70돐에 즈음하여 《한마음 이어》라는 주제로 성대한 예술경연대회를 열었다.

본경연대회에는 지역별예선을 통하여 선발된 34개의 예술소조가 참가하였으며 출연자만해도 무려 500명에 달하였다.

출연자들은 거의 모두가 민족교육의 화원에서 우리 노래와 춤, 민족악기를 배운 녀성들이였다.

조국의 이름있는 대학들에서 교육을 받은 녀성들, 조국에서의 뜻깊은 설맞이공연무대에 섰던 녀성들도 많았으며 자기의 딸과 며느리와 함께 무대에 오른 녀성들도 있었다.

가야금병창에 출연한 한 동포녀성은 손이 부르트도록 가야금줄을 튕기면서도 아픈줄 몰랐고 또 어떤 녀성은 가족들이 다 잠이 든 깊은 밤에 탁상등을 켜놓고 소리를 죽여가며 노래춤련습을 하였다.

미에현본부산하 노래소조인 《은비녀》성원들은 모두 60~70대의 로인들이였지만 매달 두번씩 꼭꼭 모여 련습을 하였다.

출연자들중 제일 나이많은 녀성은 올해 92살 난 탁정숙로인이였다. 몇해전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강한 우리 조국이 광풍을 뚫고 억세게 전진한다는 내용의 서예작품을 창작하여 동포들의 심금을 울리였던 그가 이번에는 고령의 몸에 장고를 들고나와 흥취나는 장단무대를 펼치였다.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의 70년력사를 직접 체험한 얼마 안되는 생존자들중의 한사람으로서 나이는 비록 많지만 오늘의 이 경연에 결코 빠질수 없다는것이 그의 마음이였다.

탁정숙로인을 비롯하여 공연에 참가한 애국의 1세, 2세들의 얼굴마다에는 말그대로 생기가 넘쳐 흘렀다. 한생을 애국사업에 바쳐온 이들이 희열과 랑만에 넘쳐 생활할수 있은 비결은 우리의 노래춤을 즐긴데 있었다.

합창과 무용 《조국찬가》, 가야금병창 《이국의 하늘아래》, 민족현악합주 《조국의 사랑은 따사로워라》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경연무대에 올랐다. 모든 종목들마다에 민족적권리사수와 동포사회의 미래를 위해 투쟁해온 못 잊을 나날이 어려있었다. 특히 각 지역녀맹조직의 고문들이 출연한 합창 《우리들이 가는 길》은 류다른 감동을 자아냈다. 세대는 달라도 자기들이 가는 길은 예나 지금이나 오직 하나 애국애족의 길뿐이라는 생각이 모두의 가슴속에 사무쳐왔기때문이다.

관객들은 누구나 공연을 보고 어머니들의 힘, 녀성들의 굳센 애국의지를 온몸으로 느낀 공연이였다고 흥분에 넘쳐 말하였다. 남조선에서 온 한 녀성은 경연대회의 규모에도 놀랐지만 높은 사상예술성에 더욱 탄복하였다고 하면서 그 사상예술성은 바로 민족교육이 준것이라고, 이역땅에서 민족적차별을 이겨내며 강인하게 투쟁해온 재일동포녀성들의 모습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고 말하였다.

썩어빠진 자본주의생활풍조가 차넘치는 이역의 어지러운 환경속에서도 동포녀성들은 노래를 불러도 우리의 민요를 부르고 춤을 추어도 어깨춤 절로 나는 우리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며 아름답고 고상한 우리의 미풍량속을 적극 살려나가고있다.

애국위업에 생기와 활력을 더해주는 미더운 동포녀성들이 있어 시련과 난관이 겹쌓여도 동포사회에는 언제나 희망과 락관의 웃음꽃이 활짝 피여나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상 식

단군을 숭상한 댕기

예로부터 우리 나라 녀성들이 머리를 따고 그 끝에 동여맨 천을 댕기라고 하였다.

처음에는 이를 단게 또는 단기라고 하였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시조인 단군을 숭상하는 뜻에서 쓰이기 시작하였는데 후에 댕기로 변화되였다.

* * *

고려시기의 미술

고려에 의한 국토통일은 민족예술발전의 분산성을 극복하고 다양하고 우수한 선행시기의 전통들이 통일적으로 계승발전하게 하였다.

고려시기의 미술은 종류와 주제내용, 예술형식의 탐구에서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 시기 미술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지만 그가운데서도 공예가 가장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고려시기의 공예는 당시 사람들의 높은 문화적요구와 발전된 수공업생산기술 그리고 선행시기에 이룩된 성과에 기초하여 도자기공예, 금속공예, 칠공예를 비롯한 여러 공예부문에서 독자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특히 상감기법과 같은 독특한 수법과 기법들을 창작에 구현함으로써 공예는 실용성과 예술성, 내용과 형식이 결합된 완전한 조형미를 갖추게 되였다. 그리하여 고려의 공예품들은 외국에 널리 수출되여 그 이름을 세상에 떨치였다.

고려시기 공예에서 도자기공예품들은 특별한 자리를 차지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고려자기는 색갈과 함께 문양이 독특하고 아름다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교시하시였다.

고려시기는 청자기, 백자기, 검은자기, 분장자기 등 새로운 종류의 자기들이 다채롭게 발전한 시기로 특징지을수 있지만 그가운데서 가장 많이, 가장 훌륭히 만들어진것은 비색청자와 상감청자이다.

특히 고려의 상감청자는 고상하고 우아한 색갈, 아름다운 장식무늬와 수법, 기발한 형태로 고려자기를 대표한다.

고려시기에는 독창적인 조형화수법이 뚜렷이 엿보이는 금속공예도 크게 발전하였다.

고려시기의 금속공예는 가지수가 대단히 많고 주물방법, 단금방법, 금, 은입사장식수법으로도 만들었는데 특히 오동(검붉은 색갈의 동)으로 만든 향로와 청동으로 만든 종이 우수하였다.

그리고 조개껍질을 가공하여 기물의 겉면에 붙이는 라전공예, 옥돌공예품도 다양하게 만들어졌다.

고려시기 건축도 통일국가의 환경에 맞게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 시기 수도였던 개경과 여러 도시들에 궁전건설이 큰 규모로 진행되였고 천리장성과 같은 군사적시설물들이 새롭게 일떠섰다. 건축의 종류가 다양하였고 조각과 공예, 회화의 여러 형식들을 받아들여 더욱 화려하고 정교하게 건설되였다.

고려시기 건축발전의 특징은 지형조건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궁전과 절건축물들을 종심이 깊고 조화롭게 배치한것이였다. 고려시기 궁전건축의 면모와 자취를 제일 잘 알수 있게 하는 유적은 개성 만월대이며 절건축에서는 묘향산 보현사를 들수 있다.

고려시기에는 선행시기의 돌탑형식을 계승하여 6각이나 8각의 평면으로 된 다각다층탑, 4각평면의 돌탑, 경천사 대리석다층탑과 같이 고층루각형식을 모방한 탑들이 만들어졌으며 전체적으로 전시기에 비하여 수직성이 강조된것이 특징적이였다.

고려시기 부도와 비석도 발전하였다. 일반적으로 고려의 비석은 조용하고 아담한 느낌을 주는 이전시기의 비석에 비하여 보다 시위적이며 위압적인 형상으로 만들어진것이 특징이였다.

고려시기 조각분야에서는 여전히 불상조각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그밖에 불탑, 비석, 부도, 돌등 그리고 무덤들에 장식조각들이 더 다양하게 장식되였다.

고려시기 조각분야에서 주목되는것은 태조릉에서 발견된 왕건의 초상조각이나 경효왕릉 문무관상과 같은 인물조각이 발전한것이다.

고려시기 회화분야에서도 내용의 풍부성, 형상의 진실성과 새로운 예술수법의 탐구에서 커다란 전진이 있었다.

고려시기 회화를 형태에 따라 보면 왕과 왕실귀족을 그린 인물초상과 불교관계그림을 비롯하여 유교화, 도교화가 많았고 기타 풍경화, 화조화, 동물화, 서적삽화, 사군자 등 여러가지 종류가 있었다.

고려회화에서 주류를 이룬것은 채색화였으며 그가운데서도 진채화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처럼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첫 통일국가였던 고려시기의 미술은 중세 우리 선조들의 높은 애국심과 창조적지혜, 예술적재능의 산물로서 우리 인민들에게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아주는 귀중한 재보로 된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리광일

사 화

갓쉰둥이

이 이야기는 고구려의 애국명장 연개소문에 대한 전설이다.

고구려의 수도에 있는 장안거리에 연씨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나이 갓 쉰이 되도록 그에게는 슬하에 자식이 없었다. 그러다가 그는 옥동자를 보게 되였는데 그 아이가 바로 고구려의 명장 연개소문이다. 연씨는 갓 쉰에 낳은 아이라 해서 연개소문의 아이때 이름을 갓쉰둥이라고 하였다.

그가 일곱살이 나던 해, 연씨는 아이의 흉액을 피하려면 열다섯해동안 멀리 내버려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게 되면 액막이를 할수 있다는 한 도사의 말을 믿고 아이의 등에 갓쉰둥이라는 이름을 새긴 다음 하인을 시켜 애를 먼 고장에 내다버리게 하였다.

갓쉰둥이가 버려진 원주라는 고장에는 류장자라는 이름을 가진 큰 부자가 살고있었다. 그 류씨가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는데 아이의 등에 새긴 이름자를 보고 그대로 갓쉰둥이라고 불렀다.

갓쉰둥은 자랄수록 용모가 준수하고 재주가 출중하여 사랑스러으나 류씨는 그 래력을 알수 없는데다가 남의 시비를 꺼려 종으로 부렸다.

하루는 갓쉰둥이가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하다가 웬 로인을 만나게 되였다.

로인은 갓쉰둥에게 《네 이제 도를 닦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큰 공을 세울수 있겠느냐.》라고 하더니 왜 배워야 하는가를 이야기해주었다.

갓쉰둥은 다음날부터 나무를 하러 가서는 로인을 만나 검술과 도술을 배웠고 해가 질무렵에는 누군가가 나무를 해서 실어놓은 지게를 지고 돌아오군 하였다.

갓쉰둥은 나이 열다섯이 되던 해에 류장자의 셋째딸 영히를 사랑하게 되였다. 그들사이는 날이 갈수록 가까와졌고 정분이 두터워갔다.

어느날 밤 영히는 갓쉰둥에게 속에 품은 포부를 알고싶다고 하였다.

이에 갓쉰둥은 정색하여 말하였다.

《우리 나라의 주변국이 늘 침범하여 괴롭히나 우리는 쳐물리칠뿐이고 그 화근을 영영 뽑아치우지 못하고있는것이 한스럽소.》

그런 다음 산에 나무하러가서 한 로인을 만나 검술과 병법을 배우고 익힌것까지 다 이야기해주었다.

영히는 무척 기뻐하면서 말했다.

《그런데 적국을 치자면 그 나라의 허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대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잘 살피여 후에 싸워이길수 있는 터전을 닦고 돌아오면 저는 그대의 안해는 못될지라도 그대의 종이라도 되여 끝까지 모시고 따르겠습니다.》

갓쉰둥은 영히와 굳게 약속하고 몰래 류씨의 집을 뛰쳐나왔다.

그후 그 나라로 들어간 갓쉰둥은 이름을 돌쇠로 고치고 왕의 종이 되였다. 그는 인차 왕의 신임을 받았다. 그리하여 얼마 안가서 그 나라의 말과 풍속도 익히고 허실을 살필수 있었다.

이때 왕의 둘째아들이 왕에게 고하기를 돌쇠가 비상한 인물이고 또 자기 나라의 씨가 아니니 죽이여 후환이 없게 하자고 하였다. 그리고는 곧 그를 쇠울바자를 둘러친 집에 가두어놓고 굶겨죽이려 했다.

갓쉰둥은 왕과 그의 아들이 사냥을 가고 없을 때 공주의 도움을 받아 놓여나왔다.

급히 성문을 벗어난 갓쉰둥은 험산준령의 산발을 타고 풀뿌리를 캐먹으며 지경을 넘어 집을 떠난지 열다섯해만에 귀가하였으며 그후 적국을 치는 싸움에 크게 기여하였다.

연개소문은 후날 나라의 명장으로 되였다.

* * *

상 식

장부기록법을 발명한 나라

오늘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널리 사용하고있는 장부기록법은 13~14세기에 이딸리아의 도시국가들에서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한것으로 알려진 서양식복식기록법이다.

그러나 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제일 먼저 실용적으로 장부기록법을 발명하고 사용하기 시작한것은 우리 선조들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고려때인 1010~1274년에 송도(개성)의 상인들에 의해 독특한 장부기록법인 《송도사개치부》가 개발되였다.

《송도사개치부》는 《송도사개다리치부》의 줄임말로서 《사개》라는 말은 서로 꼭 맞물린다는 뜻이며 4개의 장부가 맞물려 아귀가 꼭 맞는 장부기록법이라는것이다.

당시 장부는 4권으로 되여있었는데 한권에는 매일매일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고 다른 한권에는 거래가 많은 사람과의 관계만을 기록하였으며 나머지 2권의 장부는 1년동안의 리익과 손실, 재산상태를 결산하는 장부였다.

서양회계에서는 현재의 거래를 장래의 채권과 채무로 표현하지만 사개치부법에서는 현재의 거래를 주고받는 사실로 기록함으로써 기록이 쉽고 그것이 동시에 장래의 채권과 채무를 표현할수 있으므로 서양의것보다 우수하다.

《송도사개치부》에 의한 우리 나라의 전통적장부기록법은 1906년에 일본 《통감부》의 압력으로 서양식복식회계로 바뀌게 되였다.

이때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서양식기록법이 통용되게 되였다고 한다.

* * *

리 곡

리곡(1298년-1351년)은 고려 말기의 문인이며 자는 중부, 호는 가정이다.

아전의 아들로 태여난 그는 청년시절에 도평의사사에서 아전생활을 하였다. 1320년에 과거에 급제하여 경상도 복주의 사록참군으로 임명된 후 예문검열을 비롯한 여러 관직을 거쳐 말년에는 밀직사 지사, 정당문학 등 높은 벼슬을 하였다. 그는 벼슬살이를 하는 기간에 오래동안 중국에 들어가 살면서 고려봉건정부의 대변인역할을 하였으며 생의 마지막시기에는 리제현 등과 함께 고려봉건국가의 력사편찬에 참가하였다.

리곡은 복잡한 생활로정과 관료생활과정의 체험을 통하여 당대의 현실에서 빚어지고있는 온갖 악페와 불합리에 대하여 깊이 느끼였으며 그것은 그의 창작활동에 긍정적영향을 미치였다. 그는 《본국 재상에게 보내는 편지》, 《수재와 한재에 대한 론의》, 《장마당이야기》 등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글들에서 당시의 경제형편과 인민들의 생활처지를 보여주었다. 그는 글들에서 나라의 정사를 말아보는 통치배들의 그릇된 처사와 무능부패로 말미암아 《풍속은 어지러워지고 형벌은 문란하여져서 백성들이 살길을 잃고 도탄에 빠지였다.》고 하였으며 매관매직의 추악한 행위를 폭로하였는가 하면 백성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여줄것을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탐관오리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립장에서 리곡은 권세욕과 치부욕에 들뜬 통치배들의 추악한 생활풍조를 비판한 시 《거리에서 서산을 바라보며》, 《사자의 웨침》을 비롯하여 농촌의 인정세태와 아름다운 풍경을 노래한 《목동》, 《마을아낙네》 등 사실주의 경향의 우수한 작품들도 적지 않게 창작하였다.

리곡은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과 함께 《주행기》, 《동유기》 등 려행기도 썼으며 《죽부인전》과 같은 의인전기체의 산문작품도 썼다. 그는 기본적으로 량반계급의 립장에 서있었으나 당대의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한 진보적인 작품들을 창작함으로써 고려 말기 시문학발전에 이바지하였다.

그의 작품집으로는 《가정집》이 전해진다.

* * *

민족당과류-과줄

동포여러분들도 다 아다싶이 조선민족음식은 종류가 다양하고 품질이 우수하며 맛과 향기, 영양가에 있어서 으뜸으로 손꼽히고있습니다.

우리가 동포여러분의 친근한 길동무로 되여 잡지 《금수강산》에 적지 않은 민족음식들을 소개하였는데 그에 대해 료해를 해보다나니 이마를 치게 된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우리 아이들이 즐겨찾는 음식을 소홀히 한것이였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민족의 당과류에 대한 소개를 잘하지 못했던것입니다.

그래 이번호에서는 민족당과류의 일종인 과줄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로부터 과줄은 간식을 즐기는 아이들과 녀인들, 지어 로인들까지 관심을 가지는 음식이 아닙니까.

동포여러분가운데는 아마 《민족과자》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는분들도 있을것입니다.

《과자》라는 단어앞에 《민족》이라는 단어가 덧붙여 합친말이 된 민족과자는 문자그대로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먹던 과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민족과자에는 어떤것이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과줄, 약과, 다식, 강정, 정과 등이 속합니다.

그럼 이번호에서는 민족과자의 하나인 과줄에 대해서만 보기로 하겠습니다.

과줄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찹쌀가루로 만든 과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과줄은 바삭바삭하면서도 입안에서 스르르 녹아 먹기 좋으며 달고 고소할뿐아니라 영양가가 매우 높습니다.

고려시기 잔치상, 제사상, 세배상 등에 과줄이 올랐다는 옛 기록이 있는것으로 보아 바로 이 시기에 널리 보급된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럼 과줄만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기로 합시다.

과줄을 만들기 위하여서는 먼저 찹쌀가루를 뜨거운 물과 막걸리로 되직하게 반죽하여 10~15시간동안 삭입니다.

그것을 시루에서 찝니다. 이렇게 찐 찹쌀떡을 마른 찹쌀가루를 뿌린 판우에 놓고 밀어서 일정한 크기로 썰어 하루동안 말립니다.

말린 떡을 높은 온도의 기름에서 튀겨냅니다.

튀긴 떡의 앞뒤면에 엿물을 골고루 바릅니다.

엿은 고구마엿, 감자엿, 수수엿, 강냉이엿 등 아무 엿이나 다 리용할수 있습니다.

호박씨나 잣은 껍질을 벗기고 속살만 쓰며 흰쌀이나 좁쌀은 높은 기압에서 튀겨내고 참깨나 들깨는 고소하게 닦아 씁니다.

튀겨낸 떡에 엿물을 바른 다음에는 자기 가정의 자식들이나 식구들의 기호에 따라 흰쌀튀기, 호박씨, 깨, 잣가루 등을 묻힐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과줄은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도 그 맛이 변하지 않으며 그 재료들이 모두 소화에도 좋고 영양학적으로도 좋아 사람들속에서 호평이 높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과줄을 만들어보십시오.

아마 아이들은 자기 어머니가 손수 만든 맛있는 간식이라고, 아버지가 사준 과자보다 더 맛있다고 하면서 자기또래 애들에게 자랑을 할것이고 로인들은 또 그들대로 자기 딸이나 며느리가 만든 과줄은 입에 넣기만 해도 스르르 녹아 먹기 좋고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힘이 난다고 동네방네 다니며 칭찬부터 해줄것입니다.

해마다 진행되는 태양절료리축전무대에는 아름다운 색과 여러가지 모양을 가진 과줄들이 적지 않게 오르고있습니다.

그럼 우리 선조들의 슬기로운 지혜와 창조적열정이 깃든 과줄이 어떤 경지에 이르렀는가를 잘 알수 있는 료리축전장에서 혹시 만나게 되면 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기로 합시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연옥

우룡과 소미

옛날 평양의 어느 한 농가에 열일곱살 난 우룡이라는 총각이 살고있었다.

무술을 익히는것이 풍습으로 되여있던 때여서 그의 부모들은 아들을 대성산무술터에 보내여 무술을 배우도록 하였다.

무술터로 떠나려고 성안을 나서던 우룡은 길가에서 아릿다운 한 처녀를 보게 되였다. 처녀의 모습에 유혹되였던 우룡은 순간이나마 설레이던 마음을 눅잦히고 무술터로 들어갔다.

어느날 말을 타고 산발을 오르내리던 우룡은 내가에서 웬 처녀가 그림을 그리고있는것을 보게 되였다.

우룡은 그가 바로 무술터로 떠나올 때 길가에서 만났던 처녀라는것을 알고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우룡은 처녀에게 어디에 살며 어떻게 되여 이곳까지 왔는가고 물었다.

소미라고 부르는 처녀는 자기는 평양의 어느 한 농가에서 살며 어머니가 외적치는 싸움에서 전사한 아버지의 원쑤를 갚으라고 대성산에 무술을 닦으러 보내서 들어왔으며 무술을 가르치는 스승이 그림그리는 법부터 배우라 하였기에 절벽아래 내가에서 그림을 그린다고 이야기하였다.

자기가 무술터로 올라오게 된 사연을 이야기해준 우룡은 소미와 헤여지기에 앞서 그에게 백년가약을 청원하였다.

소미는 혼인문제를 어찌 부모의 허락없이 정하겠는가고 하며 무술을 닦고 돌아가는 날 량쪽 부모에게서 허락을 받자고 하였다.

다음날 우룡이 소미를 그리며 내가로 갔으나 그를 볼수 없었다. 련 사흘동안 기다려도 종시 나타나지 않는 소미를 두고 괴로워하던 우룡은 소미가 짐승만을 그리려 찾아다닐것이라는 생각으로 노루 한마리를 잡아 편지를 써서 목에 매여 놓아주었다.

우룡은 움직이는 과녁을 쏘기 위한 련습을 하던 중 쏴떨군 한 까마귀의 다리에서 소미가 매여보낸 편지를 읽게 되였다. 소미는 사랑에 빠지면 도를 닦으려나선 두 사람의 뜻을 이루기 어려울것 같기에 조용히 사라진데 대해 용서해달라며 뜻을 성취하는 그날까지 자기를 잊어달라고 썼다. 사랑에

조국의 천연기념물 (11)

이번호에서부터는 평안북도의 천연기념물에 대해 보기로 합시다. 평안북도에는 이름난 명승지들과 희귀한 천연기념물들이 많습니다.

먼저 상원암은행나무와 향산비슬나무, 이선남폭포와 거북바위, 천주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선남폭포

상원암은행나무는 평안북도 향산군에 있는 묘향산의 상원암마당가에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제일 높은 곳에서 자라는 이 은행나무는 학술적의의가 있고 상원암의 풍치를 돋구는데 큰 역할을 하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여 보호관리되고있습니다.

은행나무의 나이는 100년정도입니다. 해발높이 500m되는 높은 곳에서 자라는 이 나무의 높이는 18m, 밑둥둘레는 약 2m, 가슴높이둘레는 1. 6m입니다.

줄기는 연한 재색이며 껍질의 터짐은 심하지 않습니다. 이 은행나무는 깨끗하고 왕성하게 자라는 특징을 가지고있습니다.

향산비슬나무는 평안북도 향산군 태평리에 있는 천연기념물입니다. 향산읍에서 북서쪽으로 약 8km 떨어진 태평리소재지 큰길옆에 있습니다.

향산비슬나무는 크고 오래 자란 나무이며 풍치와 학술적으로 의의가 있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였습니다. 나무의 높이는 20m이고 밑둥둘레는 6. 44m이며 가슴높이둘레는 4. 34m, 나무갓직경은 23m입니다.

이선남폭포는 천하절승 묘향산 천태동에 있는 폭포입니다. 높이는 22m입니다. 이 폭포는 물량이 적은 보통때에는 의좋은 형제처럼 두줄기로 갈라져 떨어지므로 형제폭포로 불리워왔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이곳 등산로정을 새로 확정하여주실 때 이선남폭포로 고쳐 부르도록 하시였습니다. 두줄기로 갈라져 떨어지는 폭포수는 경사진 바위를 따라 떨어지다가 바위턱에 걸려 앞으로 내뿜기도 하면서 밑으로 떨어지는데 참으로 장관입니다. 장마철이 되면 두줄기의 물줄기는 합쳐져 바위벼랑전체가 폭포수로 뒤덮이게 됩니다. 폭포밑에는 깊이가 3m나 되는 소가 있습니다. 소에 찼던 물은 넓게 가로질러간 암반우에 미끄러져내려 다시 그밑에 형성된 두번째 소에 찼다가 계곡을 따라 흘러내립니다. 폭포의 왼쪽 바위우에는 3개의 기둥을 박고 세운 반원형으로 된 산듯한 선남정이 서있습니다.

거북바위는 평안북도 녕변군 녕변읍의 약산동대에 있는 천연기념물입니다. 큰 바위우에 두마리의 거부기가 엎드린듯 한 돌(바위)을 거북바위라고 합니다. 길이는 3. 5m, 높이는 3m, 웃면의 면적은 10m^2입니다. 이 바위는 중생대 유라기 단천암군에 속하는 화강암바위에 생긴 판모양틈결이 오랜 세월 침식삭박되여 마치 거부기모양을 이루고있습니다.

거북바위는 약산동대의 풍치를 돋구어줄뿐아니라 암석의 판모양틈결과 그것의 풍화작용을 연구하는데서 중요한 자료로 됩니다.

천주석은 평안북도 향산군 향암리에 있는 기암입니다. 이 기암은 천하절승인 묘향산 탁기봉중턱 해발높이 420m정도 되는 곳에 있으며 예로부터 하늘을 떠받들고있는 기둥같다고 하여 그 이름이 천주석으로 불리웠습니다. 기묘한 생김새를 이룬 천주석은 멀리서 보면 후리후리한 바위기둥처럼 보이고 정면에서 보면 마치 탑을 련상시키고있습니다. 그 높이는 60m, 너비는 10m, 둘레는 30m입니다. 바위우에는 푸른 돌이끼가 덮여있으며 꼭대기에는 소나무가 자라고있어 기묘한 풍치를 이루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 소나무를 보시면서 다른데서는 벼랑우에서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지만 묘향산에서는 벼랑우에서도 나무가 잘 자란다고 교시하시였습니다.

천주석에는 단군이 향로봉중턱의 단군대에서 이 바위를 과녁으로 삼고 매일 활쏘기련습을 하였다는 옛이야기와 묘향산의 한 젊은 장수가 장마철에 이 바위를 가지고 하늘의 비구멍을 막아 묘향산의 아름다운 자연풍치를 보존하였다는 전설이 담겨져있습니다.

김형직사범대학 강좌장 백현성

상원암은행나무

향산비슬나무

거북바위

빠져있던 자신을 뉘우친 우룡은 그날부터 무술을 닦는데 정력을 깡그리 쏟아부었다.

어느덧 삼년석달이 흘러 나라에서 열리는 무술경기에 참가한 우룡은 여러 상대들을 이기고 단연 우승자로 되였다.

우승자들끼리 승부를 다투는 마지막경기인 사냥경기에서 우룡은 송아지만한 사슴을 산채로 잡아 표창을 받게 되였다. 우룡이 임금에게 자기가 잡은 사슴을 바치려고 하자 사슴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선녀같은 녀인이 서있었다.

그 녀인은 바로 소미였다. 그는 그동안 둔갑술을 배워 이날에 사슴으로 되여 무술을 겨루는 사람들앞에 나타났던것이다.

무술을 닦아 경기에서 1등을 한 우룡과 둔갑술을 훌륭히 배운 소미를 나라에서는 장수로 임명하였다.

혼례를 치르고 부부가 된 우룡과 소미는 그후 평양사람들과 함께 나라를 지켜 큰 공을 세웠다고 한다.

* * *

상식

피부와 잠

피부는 생물물동학적으로 볼 때 잠시간에 물질대사를 활발하게 진행한다.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피부에서 물질대사과정이 저하되고 새로운 피부세포를 만드는데 참가하는 인자들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충분히 잠을 잔 사람의 피부는 매끈하고 튼튼하지만 잠을 설친 사람의 피부는 거칠고 윤기가 나지 않는다.

피부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깊은 밤이 되기 전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것이 좋다. 그것은 새로운 세포가 많이 생겨나는 시간이 밤 10시부터 새벽 2시이고 표피세포재생이 제일 적은 시간은 새벽 5시부터 오전 10시사이이기때문이다.

잠은 보통 7~8시간 자는것이 좋다. 깊은 잠에 들기 위해서는 저녁에 기름기가 많은 식사를 하지 말며 커피를 비롯한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를 마시는것을 피하는 한편 자기 전에 34~35℃되는 물로 10~20분정도 목욕하여 수면제나 진정제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잠을 잘 때 인체가 항시적으로 받고있는 지구자기마당의 영향을 줄일수 있게 될수록 머리는 북쪽으로, 발은 남쪽으로 향하게 하고 자는것이 좋다.

* * *

평안북도의 력사유적을 찾아서 (1)

- 묘향산 보현사 -

개성시의 력사유적을 편답한 우리의 발걸음은 평안북도로 향하였습니다.

평안북도에는 우리 선조들의 뛰여난 건축술과 예술적재능을 보여주는 유적유물들과 명승지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먼저 묘향산력사박물관을 찾았습니다.

박물관은 보현사건물을 그대로 리용하고있었습니다.

향산천을 사이에 두고 왼쪽에 자리잡고있는 보현사는 우리 나라 5대사찰의 하나로서 1042년에 처음 세워진 후 오랜 력사를 내려오면서 여러번 고쳐세운것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건물들은 1765년에 고쳐지은것입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의 폭격으로 대웅전, 만세루, 심검당, 수월당 등 여러채의 중심건물들이 불타없어졌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대웅전과 만세루는 건축기술과 조각기술에서 세계에 자랑할수 있는 건물이라고 하시면서 원상대로 복구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대웅전과 만세루를 비롯한 건물들과 탑들이 잘 복구되였습니다.

보현사는 대웅전을 비롯하여

조계문, 해탈문, 천왕문, 만세루, 관음전, 수충사, 《팔만대장경》보존고 그리고 4각9층탑, 8각13층탑, 보현사비 등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첫문인 조계문은 정면 3간, 측면 1간이고 가운데에 문길을 냈으며 그 좌우에 나무로 만든 금강신을 세워놓았습니다. 둘째 문인 해탈문은 정면 3간, 측면 2간으로서 조계문보다 큽니다. 해탈문의 복판에는 문길을 내고 그 동쪽에는 푸른 사자를 탄 문수보살의 조각상을, 서쪽에는 흰 코끼리를 탄 보현보살의 조각상을 두었습니다. 셋째 문인 천왕문은 정면 3간, 측면 2간으로서 세 문가운데서 가장 큰 문입니다. 천왕문에 들어서면 보현사4각9층탑과 만세루, 보현사8각13층탑, 대웅전이 차례로 서 있습니다.

만세루 앞마당에 있는 보현사4각9층탑은 화강석을 정교하게 다듬어만든 고려 초기의 돌탑입니다.

고려시기의 모습으로 복원된 만세루는 비탈진 지세를 리용하여 앞은 2층으로, 뒤는 1층으로 지은 합각집입니다. 만세루와 대웅전사이의 뜨락에 있는 보현사8각13층탑은 고려 말기의 탑입니다.

보현사의 중심건물인 대웅전은 장중하고도 화려한 건물입니다. 대웅전에는 전면에 걸쳐 화려한 비단무늬를 배합한 금단청을 입혔습니다. 건물의 모든 부재에는 어느 한 부분도 빼놓지 않고 단청무늬들과 꽃과 새, 부처 등의 단청그림들로 가득 채워져있습니다.

대웅전 동쪽에는 관음전이, 서쪽에는 만수각이 있습니다. 관음전의 동남쪽에는 주체72(1983)년에 건설된 《팔만대장경》보존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물들을 가장 안전하게 보존할수 있는 최신과학설비들이 갖추어져있습니다.

이외에도 임진조국전쟁때 의병장을 한 서산대사와 사명당을 기념하여 세운 건물인 령산전과 수충사도 있습니다.

현재 이곳으로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있습니다.

본사기자 김솔미

유모아

선 생 님!

선생: 다른 사람이 흥미를 느끼지 않는데도 그냥 이야기하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학생: 선생님!

* * *

한평생 나라의 통일을 위해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조국과 민족앞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우리 겨레의 그리움은 더욱더 강렬해지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은 조국통일을 필생의 위업으로 내세우시고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 민족자주통일의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조국통일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을 안고 여러차례 판문점에 숭고한 자욱을 새기시였다.

주체85(1996)년 11월 24일, 력사의 땅 판문점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친필비앞에서 걸음을 멈추시고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의 마지막시각에 비준하여주신 문건이 바로 조국통일과 관련한 문건이였다고 가슴뜨겁게 추억하시면서 민족의 통일위업을 반드시 성취할 신념과 의지를 표명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그 신념과 의지를 지니시고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의 대단결로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조국통일위업을 진두에서 이끄시는 첫 시기부터 그이께서는 나라의 통일문제는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단합을 실현하는 문제로 보시고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기치아래 온 민족을 묶어세우시여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고 그 단결의 위력으로 통일운동을 전진시켜오도록 하시였다.

그 나날 그이께서는 《조국통일3대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를 비롯한 수많은 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우리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가장 명확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뿐만아니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식화하시여 통일위업수행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을 마련해주시였다.

주체89(2000)년에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애국의 자취가 어려있는 백두산지구를 찾으시여 조국통일을 위한 웅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신 그이께서는 그해 6월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 되는 력사적인 평양상봉을 통하여 자주통일의 리정표인 6.15북남공동선언을 겨레에게 안겨주시였다. 6.15북남공동선언의 발표이후 조국통일운동에서 민족자주의 대를 확고히 세우고 통일문제를 해결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국통일운동에서는 지난 시기에는 상상할수 없었던 놀라운 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였다. 하늘길, 땅길, 바다길을 따라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민족공조의 통일대하가 도도히 흐르는 격동적인 사변들이 펼쳐졌다.

조국통일의 함성이 온 강토에 굽이치고 전민족적범위에서 자주와 단합의 기운이 고조되는 속에 또 한차례의 평양상봉이 열리고 10.4선언이 채택된것은 자주통일시대의 전진에 활력을 더해주는 사변이였다.

뿐만아니라 그이께서는 뜨거운 동포애로 평양을 찾아온 남조선의 각계층 인사들을 친히 만나주시고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위한 애국의 길로 따뜻이 손잡아 이끄시였다.

하기에 민족최대의 상실의 아픔이 강산을 무겁게 짓누르던 나날 남녘의 많은 정당, 단체들과 광범한 각계층은 북에 보내온 조문과 조전들에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통일을 안겨주시기 위해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고 북남선언들을 채택발표하신것은 민족사에 길이 빛날 력사적장거라고 하면서 민족과 통일을 위해 쌓으신 그이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한평생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며 조국통일의 길에 쌓아올리신 그이의 불멸의 업적은 우리 민족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원광일

본색을 드러낸 《초불정부》

박근혜패당의 적폐청산과 북남관계개선 등을 요구하여 초불을 들고 일떠선 민심에 의해 남조선의 현 《정권》이 출현한지도 반년 남짓이 지났다.

당시 남조선집권자는 《새로운 정치》, 《남북선언리행》, 《화해와 협력》 등에 대해 요란스레 떠들었다.

그러나 2017년이 다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남조선집권자의 행적을 보면 이전 《정권》과 별로 차이가 없이 친미사대와 동족대결로 얼룩져있다.

실지 그는 집권하자마자 력대 괴뢰대통령들중 제일 먼저 미국으로 달려갔으며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제창하였다. 그것도 모자라 그는 그 누구의 《도발》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대결망언을 거리낌없이 늘어놓았으며 나중에는 《공동성명》에 《최대의 제재압박》을 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것을 박아넣음으로써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적극 추종하겠다는것을 확약하였다.

한때는 미국에 《아니》라는 말을 당당히 할수 있어야 한다고 하던 그가 언제 그랬던가싶게 상전의 비위를 맞추며 동족대결에 기승을 부리고있다.

남조선집권자의 사대매국적 행위는 미국의 반공화국압살책동에 적극 추종하는 《제재압박과 대화병행》론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남조선집권세력은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트럼프행정부의 대조선정책이 저들의 《대북정책》과 같은것이라고 하면서 미국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의 돌격대로 적극 나섰다.

그러면서도 남조선집권자는 《평화》는 《시대적소명》이며 《당면한 생존전략》이라느니, 《최우선국익》이라느니 하면서 조선반도에서 《전쟁은 절대불가》이며 누구도 저들의 동의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수 없다.》고 장담하였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말로는 《전쟁불가》를 제창하고 실제에서는 《전쟁불사》를 떠드는 미국과 야합하여 북침핵전쟁도발책동에 매달리였다.

남조선당국과 미국이 련이어 벌려놓은 공중련합타격훈련과 련합탄도미싸일발사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 등이 그를 실증해주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남조선집권자는 《싸드》배치를 재검토하겠다고 남조선인민들과 한 공약을 줴버리고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싸드》발사대추가배치를 강행하도록 하였다.

남조선집권자의 반민족적행위는 《북핵포기》를 북남대화의 목표로 내건데서 여지없이 드러났다. 《북핵포기》는 리명박, 박근혜집권시기의 대결정책인 《비핵, 개방, 3 000》과 《신뢰프로세스》와 본질상 아무런 차이도 없다. 조선반도핵문제는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지속되는 핵위협공갈에 의해 산생된것으로서 조미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남조선당국이 론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남조선당국이 핵문제를 북남관계와 련결시키면서 《북핵포기》를 떠들어대는것은 북남사이에 불신감을 조장, 격화시키고 격폐의 빗장을 더 깊숙이 가로지르는 어리석은 행위였다.

현실은 미국을 등에 업고 《제도통일》을 이루어보자는것이 남조선집권자의 본색이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비록 남조선집권자가 새옷을 걸치고 《평화》니, 《남북관계의 진전》이니, 《시대적소명》이니 하며 떠들지만 그것은 겉과 속이 다른 자기의 본색을 더욱 드러나게 할뿐이다.

동족대결의 적폐청산과 북남관계개선은 남녘의 초불민심의 요구이다. 남조선당국은 이러한 민심을 저버리고 외세와 보수패당과 야합하여 동족대결을 추구하다가는 실패와 좌절, 수치와 파멸을 면치 못한다.

남조선당국은 초불민심을 배신하고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고있다는 민중의 격노한 목소리를 새겨들어야 한다.

본사기자 진룡진

북침전쟁연습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조선의 국력을 더 강하게 할뿐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새로운 대조선《제재결의》라는것을 또다시 조작해내는 범죄행위를 감행한 때로부터 얼마 안있어 유엔무대에 처음으로 나선 미국집권자는 공화국의 《완전파괴》라는 력대 그 어느 미국대통령에게서도 들어볼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무지막지한 미치광이나발을 불어댔다.

트럼프의 망발은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어떤 엄청난 파국적후과를 몰아오겠는가에 대해 판별해볼 정신적여유와 능력을 상실한 불장난에 이골이 난 망나니, 깡패의 망동에 불과하다.

지금 미국은 상대에 대한 오판과 자기 힘에 대한 지나친 과신, 대조선정책의 파산으로 하여 사상최악의 정치군사적위기에 직면하고있다. 공화국의 전략적지위가 비상히 강화됨에 따라 미국주도의 세계지배질서가 깨여져나가고 세계정치구도가 근본적으로 뒤바뀌고있으며 미국의 핵몽둥이전략은 유명무실해지고있다.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과 공갈정책이 오히려 저들의 명줄을 겨누는 비수가 되여 날아드는 정반대의 현실이 닥쳐옴에 따라 미국이 단말마적인 발악으로 매달리고있는것이 반공화국제재조치강화이며 그 산물이 바로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통한 《제재결의》들이다.

제재조치로는 아무것도 얻을것이 없다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다 낡아빠져 거덜이 나 제 기능을 상실한지도 오랜 제재따위에 명줄을 걸고 미련하게 놀아대던 미국이 그것도 모자라 미국의 집권자까지 유엔무대에 나서 까마귀 무엇먹은 소리를 역스럽게 내뱉고있으니 가소롭기 짝이 없다.

미국의 반공화국제재압박소동들은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으로 하여금 멸적의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게 하는 결과만을 가져오게 하였다.

남들같으면 열번도 주저앉을 상태였지만 조국은 그때마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더 비약했고 더 솟구쳤으며 나라의 국력을 백방으로 다지였다.

그리고 자기의 힘과 지혜를 믿고 첨단과학기술을 돌파하며 새 기적을 창조하였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이 제시한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높이 받들고 미국의 제재와 대국주의자들의 압력을 물리치며 천리마를 타고 전후의 재더미를 털어버리였다. 조선로동당이 제시한 경제와 국방의 병진로선을 받들어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낫과 마치를!》이라는 혁명적구호를 높이 들고 단 14년만에 사회주의공업화를 완성하여 자립적민족경제의 억척의 토대를 닦아놓았으며 자립적국방력을 마련하여 미제의 전쟁소동을 짓부셔버렸다.

그리고 세기를 이어 강요되여온 미국의 극악무도한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공갈을 근원적으로 청산하기 위하여 첨단무기들을 만들어냈으며 공화국을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불패의 핵강국으로 일떠세웠다.

올해에만도 공화국은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형 등의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3.18혁명》과 《7.4혁명》을 거쳐 7.28의 대승리도 안아왔다.

결국 미국의 제재요, 전쟁이요, 괴멸이요 하는

선전화 《불을 즐기는자는 불에 타죽기 마련이다!》

《위협》타령의 리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최근 일본이 그 누구의 《위협》에 대해 떠들면서 반공화국제재압박분위기를 고취하고있는것과 함께 군사대국화에로 더욱 줄달음치고있다.

몇달전 유럽지역을 행각한 일본의 집권자는 국제사회가 조선의 심각한 핵 및 미싸일개발도전에 직면해있다느니, 조선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있다느니 뭐니 하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지금이야말로 최대한의 압력을 가할 때이며 조선이 외부와 물자, 기술, 금융거래를 할수 없게 모든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망발까지 줴쳐댔다. 그리고도 모자라 외상, 방위상과 이마를 맞대고 조선의 《위협》에 대처한 일미사이의 련대강화를 지시했다.

일본이 노상 입버릇처럼 외우는 《위협》타령의 리면에는 분명 다른 목적이 있다.

일본방위성은 조선의 탄도로케트기술발전에 대응한다는 구실밑에 미국제신형요격미싸일체계인 《이지스 어셔》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미국의 《토마호크》순항미싸일을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에 탑재하는 방안을 론의하였다. 지어 순항미싸일에 의한 공화국의 탄도로케트발사기지 파괴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고있는 한편 이를 위한 자금을 래년도예산안에 포함시킬 계획까지 세우고있다.

뿐만아니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미군무력증강책동에 극구 편승해나서면서 정세를 극도로 격화시켜 저들의 불순한 목적을 달성해보려고 하고있다.

지난 3월과 4월에 미국이 전면핵전쟁연습인 《키 리졸브》, 《독수리 17》합동군사연습으로 군사적압박수위를 최대로 높이면서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선택》, 《선제공격》을 들고나오자 때를 만난듯이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정객들이 나서서 남조선에 있는 《일본인구출》의 미명하에 《자위대파견》을 제창하는 등 조선반도에 대한 재침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낸것이 바로 일본이다.

더 엄중한것은 일본이 미국과의 침략적인 공동훈련을 벌리다 못해 미국과 영국, 프랑스와 합동군사연습을 벌리면서 조선반도유사시 미국주도의 련합군에 합세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있는것이다. 그리고 보도수단들을 동원하여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면 저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여론을 내돌리고 공화국이 화학무기를 사용할수 있다고 하면서 사회적으로 대조선적대시분위기를 조성하고있다.

지금 《요미우리신붕》을 비롯한 일본언론들은 남조선에 있는 일본인들이 유사시 서울 등지의 대피소를 리용할수 있다는 기사까지 내보내며 일촉즉발의 정세격화에 키질을 해대고있다.

일본이 군사대국화와 재침에 제동을 거는 헌법을 뜯어고치려 하고있는 사실을 두고 도이칠란드의 어느 한 웨브싸이트는 일본정부가 조선반도위기를 리용하여 헌법을 뜯어고치려 하고있다고 전하였고 어느 한 외신은 아베가 운운하는 《북위협》이라는것은 헌법수정과 군비확장을 실현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폭로하였다.

헌법개악이 국내외의 강력한 비난에 직면하자 현 일본집권층은 그 출로를 조선에 대한 적대감을 극대화하여 사회전체를 군국주의소용돌이속에 몰아넣는데서 찾고있다.

도적이 매를 든다고 그 주제에 공화국의 전략무기들에 대해 그 무슨 《위협》을 떠들어대는것은 말그대로 완전한 생억지이다.

조국의 전략탄도로케트들은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공갈의 도수를 끊임없이 높이고있는 미국을 겨냥한것이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책동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는 한 일본은 공화국의 전략무기들에 대해 구태여 두려워할것이 없다.

앞에서 본바와 같이 일본의 《위협》타령의 리면에는 군국주의를 부활시키고 군사대국화를 실현하여 재침야망을 기어이 실현하려는 일본반동들의 검은 속심이 짙게 깔려있는것이다.

일본반동들은 침략력사를 부정하고 외곡하면서 과거의 제국시대를 되살려보려고 발악할수록 무덤길을 재촉하게 될뿐이라는것을 명심하여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련해

망동들은 조선의 국력을 더 강하게 해주었다는것뿐이다.

앞으로도 조선인민은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자기의 힘을 굳게 믿고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나가며 최상의 성과를 이룩해나갈것이다.

본사기자 엄향심

조선의 관광

풍부한 지식과 상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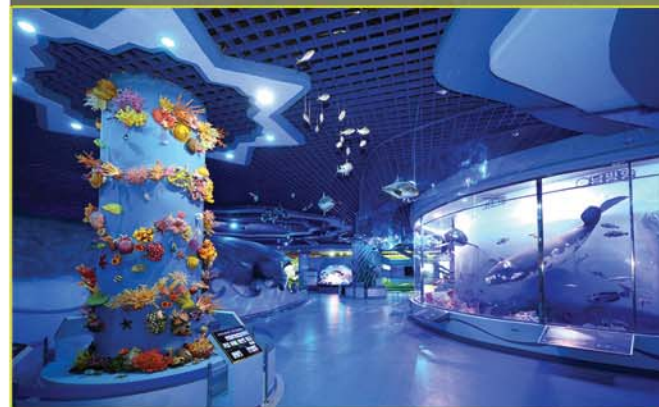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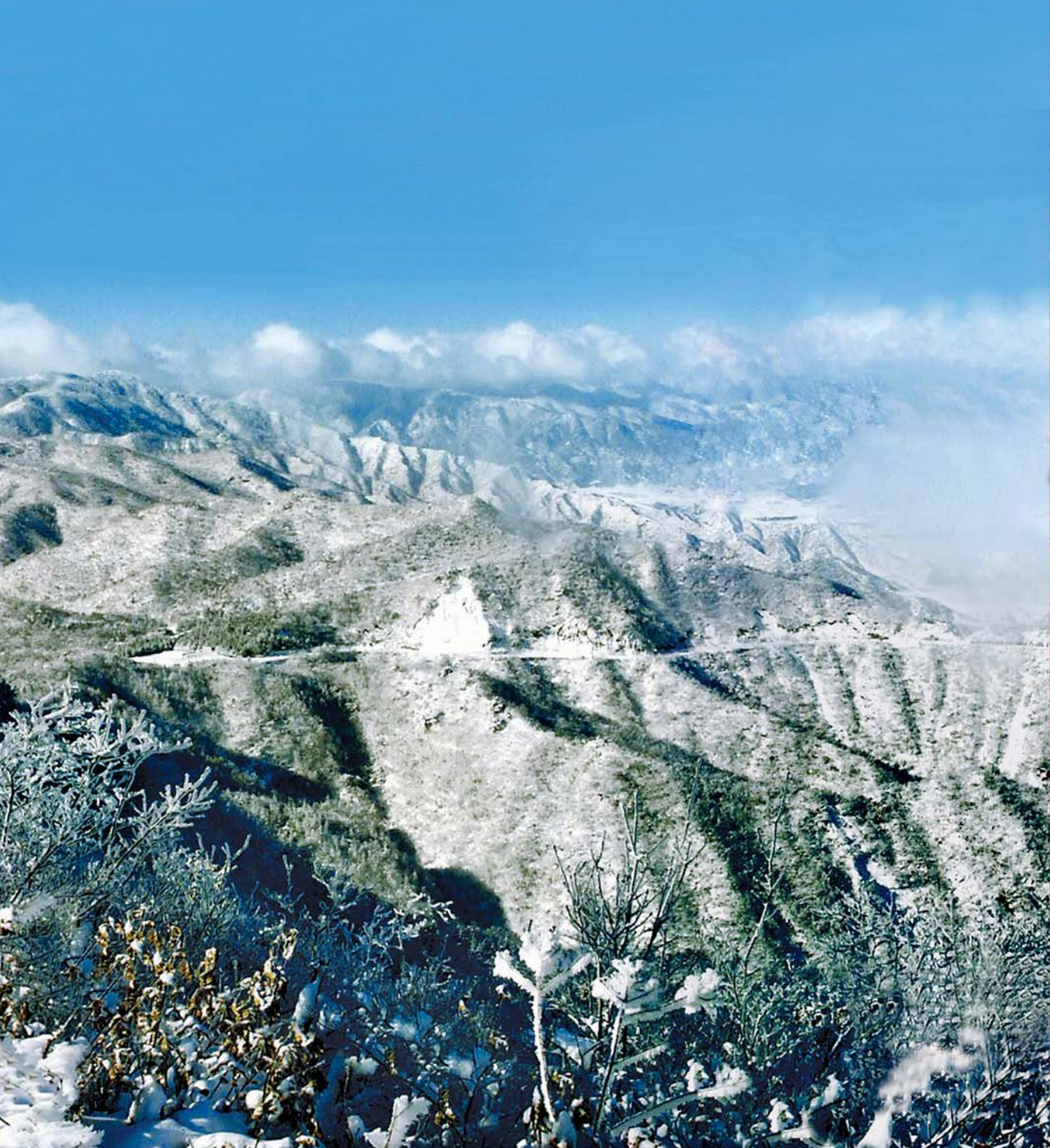
풍치수려한 대성산기슭에 자연박물관이 있습니다.

연건축면적이 3만 5 000여m²인 박물관은 우주관, 고생대관, 중생대관, 신생대관, 동물관, 식물관, 선물관, 전자열람실, 과학기술보급실 등이 배치된 전시호동과 사무실, 회의실들이 있는 관리호동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박물관에서 특색있는 곳은 우주의 진화과정에 형성된 태양계와 지구에 대한 지식을 생명의 기원과 결부하여 보여주는 우주관입니다.

우주관에 발을 들여놓으면 좀처럼 걸음을 떼기 힘듭니다.

이외에도 자연에 대한 옳바른 리해를 줄수 있게 생물계의 진화과정을 보여주는 여러관들에 각종 표본들과 학술자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전시하여 참관자들의 지식의 폭을 넓혀주고있습니다.

동식물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상식을 주는 이곳으로는 수많은 청소년학생들과 근로자들이 찾아오고있습니다.

철령의 겨울　　본사기자 최원철

철령에 겨울이 왔다.
우리 장군님 사생결단의 의지를 안으시고 넘고넘으시던 철령,
험한 령길들에 어린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업적을 소중히 간직하려는가 흰눈마저 령길모두를 품어안은듯싶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ㄱ-782158
http://www.korean-books.com.kp(조문, 로문) 전자우편(E-mail): flph@star-co.net.kp